

성경 번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1)

성경 번역문의 ^{styles}문체와 ^{figures}문체

박창해*

0. 들어가는 말 - <연구 동기>

지나간 십여 년 동안에, 나는, 대한 성서 공회에서 발행한 한국어 성경책들은 물론,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하여 내어 놓은 사역본들까지, 할 수 있는 대로 다 사서, 읽느라고 수 많은 시간을 써 온다. 그것은, 원전어-헬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동안에, 번역인들이 어떤 문제들에 직면하고, 그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가, 함을 알고 싶어서다.

그런 이유로 시작한 것이 원전어인 헬라어의 문 구조와 우리의 모어인 한국어의 문 구조와를 비교하여 보면서, 헬라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우리에게 어떤 점들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인가, 함을 찾아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성경의 한국어 번역문 구조와 헬라어에 들어선 문 구조들을 대조하여 보는 동안, 나는 차츰,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번역 이론들에도, 문제로 삼을 만한 점들이 있음과, 원전어 문법을 이루는 구성소들-構成素를 constituents과 한국어 문법을 이루는 구성소들을 보는 관점들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아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헬라어와 한국어의 두 언어의 구조적 차이점을 한국 사람의 사고 방식-사고 구조에 비추어 보면서, 번역 작업에서 일어나는 또 일어남직한 문제들을 논하여서, 번역 작업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쓴다.

그런데, 그런 연구를 비롯하였을 적에, 나는, 뜻밖에도, 나의 앞에 나타난 비교적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였음을 알았다. 그것은, 나도 성경 번역인들이 봉착하였던 가장 어려운 덩어리에 걸려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런 문제들은, 보통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말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하여서 좋을 줄은

* 언어학.

알지만, 이왕이면, 내가 깨달아 안 문제들을 그대로 나의 마음 속에 감추어 두기에는 그렇고, 말하려니 그런 것을 가지고서 무슨 말을 하는거냐, 고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들도 나와 같이 알면서 방황하는 일을 덜어드리려고 하여서라도, 곧, 다른 분도 나와 같은 번역 경험을 하여야 할 것이면, 그것을 말하여 드리는 것이 연구인의 연구 시간을 덜어 드리게 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그렇게 하려니까, 스스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의 학문하는 방식과 번역 경험에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었음을 깨달은 이상, 그 내용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나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타이르는 문제임을 고백한다.

문제를 말하기 전에, 매우 죄송하지만, 외람된 말씀을 한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나는 번역문 구조들을 분석하여 보는 과정에서 얻은 결론, 아니, 느낌-소감을 솔직히 말하려고 한다. 성경을 번역하는 이들이 원전어의 문법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어 문법에는 어두운 것 같다. 원전 문법 못지 않게, 한국어의 문법은 물론, 한국어 통어 구조와 그런 통어 이론도 잘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이 나의 머리를 스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통어론 연구를 계속하여 간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번역인들이 헬라인의 사고 방식과 한국인의 사고 방식에 관한 연구도 하여 두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번역문들보다, 더욱 분명하고도 좋은, 더욱 속 시원히 읽어 내려 갈 수 있는 번역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그들이 의식하고 있든지 말든지-이, 자기들의 마음 한 가운데, 선민 사상(選民思想)을 지니고 있음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그들이 그런 사상을 마음에 지니고 있으면, 그런 민족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의 글 속에서, 그런 사고 방식이 잘 드러남을 우리가 역력히 볼 수 있음에서다. (그런 점은 원전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적에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원전어의 문법이나 원전어의 통어론을 연구함과 동시에, 아랍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물론,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의 사고 방식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¹⁾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만, 그들의 사고 방식에서 나온 말의 의미를 한국어로 바르게 번역할 수 있다, 고 생각하기 때

1) Milka Ivic (1965), *Trends in Linguistics*, Mouton. 317항 이하, 332-340항, 특히 342-350항, 353-360항, 등.

Tholeif Boman (1968), *Das herbaische Denken im Vergleich mit dem griechischen*, Vandenhoeck & Ruprecht Gottingen. 『한국어 번역본』, 허 혁(1975), 토를 라이프 보만, *히브리적 思惟와 그리스적 思惟*, 분도 출판사, 왜관.

Leonard Jackson (1991), *The Poverty of Structuralism, Literature and Structuralist Theory*, Longman, London. 41, 84, 70-80, 100-3, 147, 204-36, 251-3, 348-53, 등등.

Chang-Hai Park (1974), *Thought Structure of the Korean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II, Yonsei University, Seoul.

문이다. 또, 그런 것을 잘 아는 이가 바른 한국어로 성경 말씀을 번역하여 놓았어야, 그런 책을 우리가 읽고서,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놓은 성경 말씀-신약 전서들을 대할 적에, 가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여 본다. 곧,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적에, 유대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한국 땅에 오셨더라면, 우리에게, 어떤 말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여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을까, 하고 생각하여 본다. 주님께서 한국 땅에 오셨으니까, 한국어로 생각하시면서, 한국어로 말씀을 하시되, 한국어의 바른 어법과 정확한 표현 양식-문체 style을 갖추어서, 말씀을 하여 주셨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어도, 우리 한국어의 어법에도 맞고, 한국 사람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문 구조체-줄여서, 문체 style로 문 구조들을 이루시므로, 그런 어법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한국인의 사고 방식에도 맞고, 우리가 지켜가는 말의 예법禮法에도 맞는 말로 표현하셨으리라고 생각하여 본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도, 헬라인이나 히브리인들 처럼, 선민 사상選民 思想을 우리 마음에 지니고 살면서, (그들처럼) 자궁하면서 살거나, 예수님처럼 의로운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자비로운-겸손한 마음을 지니고서 살아 갈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여 본다.

확실히, 성경 원전어에 나타난 문 구조들을 잘 살펴 보면, 헬라인들은 우리 한국어로 사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고 방식을 지니고 있음을 직감한다. 그런 직감直感 intuition을 찾아 나서는 것이 언어학자들의 할 일이라고 현대 언어학자들은 알고 있다. 언어학자들이 그런 직감에서 온갖 어법은 물론,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까지를 찾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연구에서 찾아놓은 것이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다. 언어 구조가 다르면, 그런 언어로 표출하는 표출문 구조도 서로 다르다.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저들은 선민이고, 우리는 이방인이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에게는, 위로서 자동적으로, 은혜가 내린다.’-수동문 구조,고 믿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를 말하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셨으므로, 주님께서 위로서 은혜를 내려 주신다.’-능동문 구조,고 믿는다. 한국어를 말하는 우리는 스스로 의식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생각하고들 있다.2)

2) (이 즈음에 와서는, 우리 한국어가 어법적 혼란기에 들어섰으니까, 능·수동문 구

전자는 **수동적인 사고 방식**-주로, 수동문 구조들로 구성된 사고 방식에 젖어 있음을 보이고, 후자는 **능동적인 사고 방식**-주로, 능동문 구조로 구성된 사고 방식을 지니고서 살고 있음을 본다. 곧, 아버지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를 놓고서, 생각하여 보면,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저들**-헬라인과 그 후예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이방인인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이들이 그런 점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헬라이어 문 구조에 수동문 구조로 구성된 말을 우리 한국어의 능동문 구조로 번역하여야 하는 점-통어 이론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곧, 그런 **사고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통어 구조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하면, 원전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분명한, 그리고, 온전한 한국어로 번역하여 놓을 수가 없다.

그런 점을 놓고서는, 이미 한국어로 번역하여 놓은 글들에서 꽤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곧,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놓은 문 구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면, 언어 표현 구조의 차이는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사고 구조에 터하여 있음을 본다. 아래에다가 예로 드는 성경 구절에서도 그런 면의 일부를 살펴 볼 수 있겠다. 그런 사고 구조와 표출문 구조에 관한 문제들을 놓고서는 자리를 달리하여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특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말의 문법 규칙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주 기도문의 번역 문제가, 아직도, 그치지 않는 것은 한국어의 문법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한국어의 문법 이론으로나, 한국어의 통어 이론으로 주 기도문의 어법 문제를 연구하는 이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러함에도, 번역문 구조에 남아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도가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신에게 기도하는 말의 어법과 그 사고 방식도 알아 두어야만, 바른 어법으로 구성된 기도말의 어법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번역인인 우리가 모국어의 어법과 통어 이론을 연구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하면서, 주 기도문의 문 구조를 논하고, 문체를 논하는 것은 무엇이 무엇을 이끄는 것과 같다. 먼저 할 일, 먼저 연구하여 두어야 할 것을 먼저 연구하는 것이 그런 문제들을 푸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시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서 산다. 모든 그리스

도인이 그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지식으로만 알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이루는 우리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바꿔 놓아야만 하는 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곧, 우리는 스스로 능동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이루어야만 한다. 그리하여야, 우리는 번역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초한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믿어야만, 우리는, 우리도 선민들처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심을 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다. 그것은, 원전어와 한국어 번역문을 잘 비교하여 가면서, 성경의 문 구조와 그 글을 쓴 사람의 사고 방식을 잘 살펴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문 구조들을 분석하여 보면, 분명히 잘 나타난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한국 사람의 사고 방식을 따른 한국어다운 한국어로 번역하여 놓아야 한다.

가령,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차례로 뽑아내어서, 그 문 구조들을 구조적으로 살펴 본다, 마태 복음 3:9하-10(세례자 요한이 전도할 적에 말한 구절 중에서), 5:37(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서), 5:9-13(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곧, ‘주 기도문’의 문 구조), 등-이 들을 놓고서는, 본문에서 다루려고 함을 원전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을 비교하여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구절들을 끌어서, 그 구절을 이루는 문법 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우리가 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런 점들을 모아서 번역 이론으로 발전시켜 가면, 우리도 우리의 번역 이론을 새롭게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할 수 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예로 여기에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그런 예를 들기 전에, 문체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여 두는 것이 좋겠다.

1. 문체란 무엇인가.

문체란 무엇인가. 이를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다. 문학가들이 보는 문체, 문인들이 자기의 문장 구성 형식으로 표출하는 문장의 미적 특징을 지닌 문체, 그리고, 고전적인 입장에서 문학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서, 문장 형식을 찾아 세우는 이론, 시적인 면, 언어 미학적인 면에서 살펴 보는 이론들에서, 문체를 어느 하나로 풀이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 없는 듯하다. 언어 학적인 면으로 다루면, 문 구조를 구성하는 표현 양식 면에서, 통어적 특징

으로 문체를 생각하여 보는 이론, 등등이 있지만, 그 이론들도 다 각각 다르므로, 아직도 문체를 놓고서 뚜렷한 정의를 내리지 못함은 물론, 뚜렷한 줄거리를 잡지 못하고들 있다. 그것은 작가들이 문장으로 적어 놓은 글에서 문체 규칙을 찾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어찌 보면, 세기말에 가거나 이를 법한 이야기로 남는다.

서양 전통적인 면에서 보면, 담화 discourse를 하는 주체가 드러내는 품격까지를 내포하는 개성의 표지가 문체의 기초이고, 작가나 발화인이 문 구조를 이루는 기본 구성소들의 배열에다가, 개인의 성격과 정서를 담아서 표출하는 작가의 **작풍** 作風, 곧, **문장풍** 文章風- 이를 현대의 언어학적으로 보면, 문장의 표현 양식에서나 드러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작가 개인의 창의성, 감수성 感受性이나 심미성 審美性을 드러내는 요소들을 구조화하여서, 문장 표현 文章表現의 기교 技巧로 얹으면, 그것도 우리는 그 개인의 문체의 한 부분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문체론의 역할**은 작가나 발화인-흔히, 이를 화자 話者라고 함-이 무엇이나 **직관**으로부터 **지식**-문법 규칙, 등으로 옮겨가는 순화 과정, 이를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문 구조의 **전환 과정** 轉換過程 transformation process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의 언어 생활 면이나, 문학 생활 면에서 살펴 보면, 그런 것들은 발화인이나 작가가 부리는 **말투** mode of speaking / mode of expression요, 문인들의 **글투** manner of writing로 나타나는데, 그들을 우리는 **문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곧,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글의 생김새나, 거기에서 풍겨 나오는 내음이 말투라,고 말이다. 그런 특가 들어 있는 말을 듣거나, 그런 글을 읽으면, 감수성이 빠르고, 정이 두터운 사람은, 그런 말이나 글의 투에서, 발화인이나 작가의 개성, 품격, 식견, 위풍 같은 것까지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런 요소들은 다 언어 구조 밖에 존재하는 요소들-언어학 이론에서는, 이들은 언어 외적 조건으로 있음이다. 그런 요소들을 작가가 자기의 글에서 풍기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투의 요소들로 문체를 삼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식의 느낌을 문체에 엮는 것은 어느 나라 말에서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장 구조에서 그런 문체소 文體構成 要素를 가려 세우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정쩡한 말을 하면서 문체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언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과 문 구조에는, 그 문 구조체에서, 문체로 드러내어 보일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구조적 구성 요소-특징을 찾아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발표되어 있는 글 중에, 문체가 어떤 것이라고 말한 것이 더러 있다고 하여도, 언어학자들이 흔히 하여 가는 바와 같은 문 구조의 특징을 문체의 구성소로 내어 세울 만한 <단위 구조체>를 찾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의 표현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머물러 있으므로, 나는 문체라는 것을 특라는 표현

체계로 집약하여 본 것이다.

우리가 그런 투를 문장 구조에서 찾으면, 그것은 작가가 적은 글에서 볼 수 있는 표현 양식일 것이다. 그런 표현 양식은, 언어의 기본문 구조에, 문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구성소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를 작가가 유형화(類型化) patterning하여서 지니고 있으면, 그것은 사고 구조에서 비롯한 사상 체계 유형과 유형화한 정서의 향기가 표출문 구조에 그대로 투사되어 있을 수 있음을 나는 지적하여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남들이 자기의 모어에서 보고 느끼는 그런 말투나 글투에서 드러내는 개성이나 심미적 필치를, 언어학자들이 보는 바와 같이, 언어 외적 조건으로 보고 있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한국어의 문 구조에서 찾으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문 구조의 한 부분으로서, 문 구조에 나타는 표현 양식 style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곧, 그런 표현 양식들은 다른 언어 구조에서는, 별로 찾아 볼 수 없는 요소들인데, 우리에게 아주 다행한 것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말투로 있는 그런 표현 양식 구조를 고스란히 그대로 담고 있음을 본다. 이는 천부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연구하는 언어학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구조 언어학에서 문체를 다루는 이론과 현대 언어학적, 또는 변형 생성 문법가들이 다루는 문체 이론이 다 다름을 알 수 있다.³⁾ 그런 이론들을 여기에다 다 설명할 겨를이 없다. 그런 이론들은 다른 데에서 다룰 법하다.

다만, 언어학적인 면에서, 내가 생각하는 바와 가장 가까운 이론으로 말하면, 리파테르의 문체론⁴⁾을 들 수 있다. 그를 따르면, “메시지 message는 표현하고, 문체는 강조한다.”라고 한다. 그는 언어의 제 기능을 더욱 발달한 분석 이론으로 분석하여 보면서, 정보 이론, 발전한 구조 언어학적 분석 방식을 원용하여서 찾은 것으로서, 문체의 관념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로만 야콥슨에서 보는 것처럼,⁵⁾ 옛글에 멋있게 들어선 고전적인

3) Noam Chomsky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 p.3.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p.70.

David Crystal (1987),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pt. 12.

J. Dubois, M. Giacomo, L. Guespin, C. Marcellesi, J.-B. Marcellesi, J.-P. Mevel (1973),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Librairie Larousse의 style항 참조

Leonard Jackson (1991), *The Poverty of Structuralism, Literature and Structuralist Theory*, Longman, London and New York. 77, 130-1.

4) Michael Riffaterre (1971), *Essais de stylistique structurale*, Flammarion, Paris.

5) Roman Jakobson (1987), *Language in Literatur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표현 양식의 형태도, 현대적인 그것으로 발전시켜 가는 새로운 경향을 띠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중세의 용비어천가가 지니고 있는 표현 양식들이라 든가, 더 고대로 올라가서, 신라 향가가 지니고 있는 표현 양식들을 현대화 시켜서, 문체 양식으로 발전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시조를 구성하는 구성소들은 어떨까.

그런데, 현대 한국어의 문 구조에 들어 있는 문체의 구성 요소는 리파페르의 그런 강조 정도의 것이 아니고, 문 구조를 이루는 직접적인 구성 요소들-형태소들의 배열로 이름-그것은 표현 양식을 나타내는 서술 접미사들임.-로 문 구조체 안에 존재함을, 우리는 본다. 그것은 문 구조의 구성 규칙으로 문 구조 안에 있다. 그런 요소들을 나는 표현 양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표현 양식은, 문 구조를 이루는 구성소로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구성 방식이 있다. 그 하나는 형태소로까지 분석할 수 있는 요소들이고, 다른 하나는 상가 음소들^{上加 音素들}의 배열로 이루는 것들이 있다. 전자는 문 구조나 문장 구조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후자는 말로 말하여 가는 문 구조들 위에 얹쳐서-상가하여서 나타내는 구성소들이다.

그러면, 내가 세워 가는 상관성 이론-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적 상관 관계성 *correlative relations of relativity* 이론에서는, 통어 구조 안에서 문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를 놓고서는 아래에서 간략하게 다루려고 한다.

1.1 문체 구성소의 역사적 발전

한국어의 통어 구조를 잘 살펴 보면, 문 구조를 이루는 구성소에 문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음을 본다. 원전어들을 비롯하여서, 그들과 동일한 언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 구조들에서는, 그런 표현 양식을 표출하는 문 구조의 구성소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것은, 그런 언어 구조들에는, 그런 구성소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양 학자들은 문체라는 것을 문 구조의 외적 조건으로 다루거나, 문 구조에서 풍기는 뉘앙스로 다룬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그런 표현 양식을 이루는 구성소들이 문장 구조를 이루는 문 구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나는 그런 표현 양식들을 문체 구성

소들(文體 構成素) style constituents로 다룬다. 곧, 그런 구성소들이 심층 구조를 이루는 기저 언어 구조 base language structure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저 언어가 전환 과정(轉換 過程) transformation process을 거쳐서 표출문 구조로 나타날 적에, 그대로 표출문 구조에 표현 양식으로 나타남을 본다.

성경 번역문들에서, 그런 표출 양식을 드러내는 구성소들이 어디에 분포하여 있으며, 어떤 통어 기능을 수행하는가 함을 찾아 볼 수 있다. 곧, 그런 번역문 구조의 어떤 데에서 나타나며, 시대적으로 어떻게 발전하여 내려 왔는가 함을 살펴 보려고 하여서, 나의 손에 들어 있는 성경책들에서, 그런 예를 찾아 보면서, 나의 견해를 말하여 보려고 한다.

1900년으로부터 한국어로 번역한 신약 성경 구절들을 아래에 예로 들어 놓고서, 그 문장 구조들에 들어선 문 구조들에서, 문체 구성소로 이룬 문 구조의 표현 양식들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 분포하면서, 번역문 구조가 어떻게 발전하여 내려왔는가, 함을 예문 구조들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그 글들에서, 표현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한번 찾아 보자.

예문으로 인용한 본문은 요한 복음 1:1-5임.

1) 가. 1900년

구세주강성일천구백년 - 대한광무스년경즈 신약전서 대한황성미이교회인쇄소간출⁶⁾

처음에 도가 잇스니

도가 하나님과 궤치 계시매 도는 곳 하나님이라

이 도가 처음에 하나님과 궤치 계서서

도로 써 만물이 지이엿스니 도 업시 지은 물건을 짓지 아니 하였느니라

싱명이 도에 잇스니 싱명은 사람의 빛치라

빛치 어두온디 빛치되 어두온 거시 이지 못 하더라

나. 1926년 鮮漢文 貫珠 新約全書 大英聖書公會 發行

太初에言이有 하니言이하나님과同在 하니말은卽하나님이시라

此言이하나님과同在하시서言으로萬物이造호되엿스니

造호物이言이업시는造호것이一도無하니라

生命이言에在 하니生命은人의光이라

光이暗에照호되暗호거시覺치못하더라

다. 1959년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대한 성서공회 발행

1998년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대한 성서공회 발행

6) 책 말미에 번역자들이 서명을 하였다. H. G. Underwood, Jas S. Gale, Wm. B. Scranton, H. G. Appenzeller, Wm. D. Reynolds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 1967년 새 번역 **신약 전서** 대한성서공회 발행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생겨났으며 그를 통하지 않고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습니다.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니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 1977년 공동 번역 **성서** 대한성서공회 발행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 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모든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

바. 1993 표준 새번역 **성경 전서** 대한성서공회 발행
2001 표준 새번역 개정판 **성경 전서** 대한성서공회 발행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사. 2000년 한국 천주교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분도 출판사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시였다.
그분은 맨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생겨난 것치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에 보인 여덟 가지 번역문 구조에 나타난 문 구조들의 구성 방식을 살펴 보면, 그 번역문 구조들은 다 각각 번역문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특징이라는 것이 그 문 구조들이 지니고 있는 표출문 구조의 스타일 구성소, 곧, 그 문 구조의 문체 구성소 style constituent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1가)에서 1다)까지의 문 구조들은 […-라]라는 문체 구성소를 지니고 있고, 1라)의 예문 구조에서는 문체 구성소로 […ㅂ니다]를 지니고, 1마)에서 1사)까지의 예문 구조들에서는 […다]라는 문체 구성소를 지니므로, 그 표출문 구조들이 다 각각 문 구조의 구조적 특징을 지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첫째, 예문 1가)에서 1다)까지의 번역문 구조의 특징은, 그 문 구조들에서, 서술 동사절로 분포한 [하느님이(시)라]의 {-라}이며, [없느니라]와 [흐니라]의 {-라}, 그리고 [흐더라]의 {-라}다. 또한, [하느님이시라]의 {-라}이며, [無하니라]의 {-라}이고, [光이라]의 {-라}이고, [못하더라]의 {-라}다.

둘째, 예문 1라)의 번역문 구조의 특징은 그 서술 동사의 끝을 […ㅂ니다] 하나로 끝맺었음을 보며,

셋째, 위에서 다룬 예문 구조 이외 예문 구조들의 특징은 문 구조의 종결을 {-다}로 끝맺었음을 본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 구조에 분포한 서술 동사절에 종결 접미사로 들어선 서술 종결 접미사가 곧 문체 구성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면, 그런 서술 종결 접미사들이 어떤 이유로 하여서, 그런 문체 구성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함을 다음의 1.2.3항에서 살펴 보려고 한다.

1.2 문체 구조의 역사성

- 고전적 문체와 현대적 문체 -
- 문체를 보는 우리의 관점 -

한국어의 표출문 구조에 분포하는 문체 구성소 구조는, 번역문 구조가 역사성을 띠고 있음과 같이, 역사적 발전 과정을 함께 견고 있다.

1)에 보인 예문 구조들 중에서, 1가)의 번역문 구조는, 고풍^{古風}이 담뱃 들어 있는 고전적^{古典的}인 문 구조체다. 그 책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이기 시작한 해가 1900년이니까, 한 세기가 지났다. 그러므로, 그것을 고전^{古典}의 하나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그 번역 성경, 곧, 대한광무스년경즈의 『신약 전서』가 지닌 문체 구조는, 한 세기의 역사성을 띠었으며, 그 번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서 번역 사업을 도운 한인^{韓人}들은 우리 한어^{韓語}로 이룬 고전들을 다 섭렵^{涉獵}하셨을 것이므로, - 곧, 실질적^{實質的}으로는 수천 년의 역사성을 띤 것과 같을 것이므로,- 그 번역문 구조의 표기 체계는, 통어론적인 면으로 살펴 보아도, 그 당시의 것으로서는 정연한 모습을 갖춘 것으로서, 높이 평가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그 번역문 구조가 갖추고 있는 문체 구조는, 튼튼한 문법 규칙 아래에서 구축하였음에 놀란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문법책이 지식인들의 눈에 든 시기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나라에서, 문법가들이 문법서를 내어 놓기 전에, 그런 번역 성서가 이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우리 나라에서, 문법서가 출현되어 나오기 이전 시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미 신라 시대로부터 내려 오는 국어에 대한 국민 의식이 한국 지성인들의 머리 속에 내재하여 있었음을 보이는 것으로서, 성경 번역문 구조의 문체에서 그런 훌륭한 어법 규칙이 있었음을 환히 내어다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눈 앞에 놓고서, 한 없는 경의와 사랑을 느끼지마는, 그를 여기에다가 일일이 다룰 겨를이 없다.

다만, 삼국 시대 이후 계속하여서 출간하여 나온 서책을 읽어가며 애족심을 기르면서, 한국어 문법을 스스로 마음에 담고 있는 분들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동참하였음을 깨달아 알므로, 그저 그분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문법 시대 이전에 번역한 문 구조체들은, 유교 경전을 읽는 이들이 읽으면, 좋아하거나, 만족스러워 할 문 구조체로 이룬 것이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여 보는 것은, 그 책은 누구를 위하여서 번역한 것인가, 함을 생각하여 보게 한다. 그 책이 채택한 문 구조체는 다음에서와 같다.

[아달을 나흐리니 일흠을 예수-라 흐라 이는 제 빅성을 죄악에서 구흐시리라 흠이니라 흐더라] - 마1:21

[이때에 예수 - 갈닐리로서 요단 강에 니르러 요한의게 세례를 받으라 흐신디 요한이 스양하야 곁으디 내가 맛당히 네게 세례를 받으터인디 너- 내게로 오시닛가 예수- 디답하야 곁으샤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모든 율혼거슬 이러케 다 흘지라 하신디 이에 요한이 허락 흐거늘] -마 3:13-15

[로마에서 하늘님의 스랑흐심으로 부르심을 넘어 모든 성도 된 자의게 편지 흐노니 하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크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편안함이 너희게 잇기를 브라노라] -롬 1:7

이상에 예로 올린 성경 구절에서, 문 구조를 구성하는 방식과 문절 구조

를 이루는 방식이 정연한 맞춤법 체계까지를 이루었음과 그 문 구조를 이루는 문 구조체가 꼭 유교 경전을 읽는 듯한 문체로 구성하였음을 본다.

그리고, 그 번역문 구조로 하여서, 우리는 당시의 형편으로서는, <대명사 {나}-{너}와 그 복수형을 다른 명사로 대체하여서 사용하는 규칙이 아직 생겨 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볼 수 있음도, 그 책의 문 구조상의 특징임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다.

이로써 보면, 그 『신약 전서』에서 채택하여 쓴 문 구조체의 기술 양식-표기체계은 평민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의연히 알려 준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경 번역문으로 채택하여 쓴 문 구조체의 구성 방식을 잘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조선조 후기에, 다산^{茶山} 정약용^{鄭若鏞}은 유교 경전 중의 하나인 대학^{大學}을 공부하던 사람을 지목하여서 말한 바에도 분명히 드러난다. ‘고대의 대학^{大學}에서 대학 공부를 하던 학생들은 “천자의 아들과 제후·경·대부의 맏아들들”이었다. …… 그리고, 다산은 “재능만 있으면, 한미하고 천한 집안 사람일지라도 경상^{卿相}의 지위에 뛰어 올라 군주를 보좌하고, 만민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했다지만, 당시의 현실은 역시 사대부 집안 이상의 계층에 한정된 이야기이지, 평민 이하 계층을 포함하여서 하는 말로 보기는 어렵다.’고 김기현 박사는 말하고 있다.⁷⁾ 우리는 그런 점에 깊은 관심을 쏟는다.

여기에서, 필자가 위에 보인 말을 인용하는 것은 1900년에 나온 신약 전서의 문장 표현 양식과 문 구조를 구성하는 방식이 <문법 이전 시대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개역 성경이 채택하여서 쓴 문 구조의 표현 양식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고 함을 여기에 적어 둔다. 나도 『개역 성경』이 채택한 문체를 <좋은 뜻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사대부들과 그 자제들에게까지 읽게 할 수 있는 문체로 하려면, 그런 표현 양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좀 미미하지만, 하여 봄직도 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근본 뜻을 믿음으로 새기면, 우리는 그런 표현 양식 이외에도 좋은 표현 양식이 있을 터인데, 번역하는 이들이, 그런 데에는 어찌하여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을까, 하고 생각하여 본다.

1마)에서 보는 신약 전서의 문 구조체는 문장 서술의 표현 방식을 […**다**다]로 하였음을 본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친구에게 편지글을 쓸 적에 흔히 쓰는 문체다. 만일, 현대어 성경의 번역문 구조를 [다**다**]체로 일관하여서 쓴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화말의 문 구조체>는 어떤 스타일로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7) 김 기현 (2002), *대학-진보의 동아시아적 의미*, 사계절출판사, 15-35.

그런데, 1977년에 가서 나온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번역문 구조의 표현 양식을 서술 단정 접미사 {-다}를 써서, 지금까지 전하여 내려 오던 문 구조의 문체를 현대인의 언어 생활의 실상과 일치 시켜 놓았는데, 그것은, 성서 번역사에 일획을 그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두어 가지의 흠을 남겼으니, 그 하나는, 그 책에서 채용한 조어법^{造語法}이 흔히 <한국인이 쓰는 조어 방식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 있음>이 흠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 책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화법^{對話法}이 현대인의 대화법에 맞도록 하였더라면, 더 나은 번역문 구조체를 갖춘 성경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봄이 버금이다.

전자는, 가령, 창세기 첫머리에 나오는 부사어절 ‘태초에’를 ‘한 처음에’로 조어하였음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한 처음에]의 한정사-관형사라는 것 {한}이라는 관형어는, {옛날}이라는 말처럼, 시간은 나타내었으되, 일정한 한정성을 띠지 않는 말-명사, 곧, {옛날}과 같은 말 앞에다가는 쓸 수 있지만, 시간성을 비교적 분명히 나타내는 명사 {처음}과 같은 말 앞에다가는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처음]이라는 신조어는 그리 잘된 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후자는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는 표현 양식이라든가, 가부장들이 쓰는 권위 있는 말투에 드는 것이므로, 그런 투를 성경 번역문 구조에다가 쓰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번역문 구조체를 안겨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든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말의 표현 양식이라든지, 사도들이 증언하는 말의 표현 구조들이 역시 권위주의적인 면을 띠고 있음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안겨 준 것이고, 또 안겨 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는, 그 말의 표현 양식을 현대화하여서 번역하여 줌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다.

1사)의 표준 새번역 성경 전서의 번역문의 문 구조체들은, 어떤 면에서는, 현대어의 어법에 맞는 말로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가령,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 양식-어느 누구나 주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의 예법으로 번역하여 주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효과가 더 잘 나타날 것이고, 주님께서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번역문의 스타일과 같은 문 구조체는 아닐 터인데……, 하는 생각을, 나는 하여 본다. 그리 번역하였더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은혜롭고, 더 친밀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았을 것이다.

곧, 성경 말씀을 번역하시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현대인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표현 양식을 갖춘 문 구조체로 번역하였더라면,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더 존경하고 더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말씀 번역문이 갖춘 어법은 현대인의 언어 표현 양식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마음 속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산다.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그 생각은 기저 언어 구조 base language structure로 이룬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 기저 언어 구조로 이룬 문 구조체를, 상대인이 알아 듣기 쉽게 전환 transformation하여서, 표출문 구조로 이룬 문 구조체로 말을 한다.

곧, 사람이 사람을 대하여서 하는 대화의 화법은, 발화인이 상대인을 대하는 순간에, 그 상대인이 편안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 구조체, 곧, 그런 표현 양식으로 바뀌어서-전환하여서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사람은 지닌다. 그런 능력이 사람의 마음에는 담겨 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사람의 마음에 담아 주신 귀한 선물이다. 언어 표현 방식에, 그런 전환 과정이 있음을 아래의 예문 구조들로 설명하여 본다.

- | | | |
|------------------|-----------------|----------------|
| 2) 가. 김 선생이 온다. | <<기저문 구조>> | 마음으로 생각한 말 |
| | 기저문 구조로 구성된 그 | |
| | 말을 그대로 표출문 구조 | |
| | 로 표출할 적도 있음. | |
| 나. 김 선생님이 오신다. | (전환 - 표출문 구조 1) | 말로 전환하여서 표출함 |
| 다. 김 선생님께서 오십니다. | (전환 - 표출문 구조 2) | 더 예의를 지켜서 하는 말 |

위에서 예로 보인 2)의 ‘가, 나, 다’의 예문 구조들이 표출하는 의미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그 말을 상대인에게 표출하는 표현 양식이 다를 뿐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가)의 문 구조는, 발화인이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문 구조체-심층 구조이고, 또, 그 기저문 구조로 이룬 말을 그대로 표출문 구조로 표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2가)의 문 구조는 기저문 구조로 있음과 동시에, 발화인이 그 기저문 구조를 그대로 표출문 구조로 하여서 표출할 수도 있다.

2나)의 문 구조는, 발화인이 2가)와 같은 생각을 상대인을 만나는 순간에, 상대인의 마음을 살피 가면서, 그런 생각-기저문 구조를 상대인이 알아 듣기 좋게 전환하여서 표현한 말이고, 2다)는, 김 선생에게 대한 자기의 예의를 표현 양식으로 갖추어서, 표출한 말의 문 구조 유형이다.

그런데, 우리가 위의 예문 구조에서 보는 바는, **그 문 구조들이 표출하는 의미 내용은 동일하지만**, 다만, 말을 듣는 사람의 심중을 헤아려서, 또는, 그 말에 등장하는 사람의 인격, 사회적 지위, 신앙의 대상, 등을 고려하여서, 그 말의 표현 양식을 달리하였음을 볼 수 있다. 곧, 표현 방식은 달리하였어도 그 의미 내용은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표현 양식을 생각하는 마당에서, 위에서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대화인 사이에서, 수행하는 언어 기능의 바닥에는, 언어로 말미암은 **상관성**- 상대적 상관 관계성이 내재하여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화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재하여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언어 구조 속에 그런 상관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 언어학 이론을 펴는 나의 통어 이론의 하나다. 이를 놓고서는 다른 기회를 가지겠다.

1.3 한국어의 문 구조 구성 방식과 문체 구성소의 분포

우리는 문 구조에 분포하면서, **그 문 구조의 구조적 특징을 드러 내어 주는 문체 구성소들이** 그 문 구조의 어디에 분포하여서, 어떤 구성소들과 어떤 상관 관계성을 지니고서, 어떤 통어 기능을 수행하면서, 어떤 의미를 표출하는가, 함을 간략하게 살피 보려고 한다.

문 구조에 분포하는 문체 구성소를 살피 보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한국어의 문 구조의 구성 방식을 알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이 항목은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그 하나는 **문 구조의 구성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문체 구성소 구조의 구성 방식**이다.

1.3.1 한국어의 문 구조의 구성 방식

이 지구 위에는, 크게 세 가지의 언어족이 있다. 그것은, 우리 한국어와 같이, 첨가어(添加語)에 드는 언어들이 한 언어족에 있는가 하면, 인국어와 같이, 굴절어(屈切語)에 드는 언어들과 중국어와 같이, 고립어(孤立語)에 드는 어족도 있다. 가령, 한국어, 몽골어, 만주어, 통구스어, 튀기어어, 등은 첨가어에 들고, 라틴어, 영어, 불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랍어와 같은 언어들은 굴절어에 속한다.

한국어의 구조적 특징은 이렇다. 문 구조(文構造)는 문절(文節)들이 서열을 지키면서, 배열하여서 이루고, **문절들은 그 어간에 접미사(들)이** 첨가하여서 이룬다. 접미사에는, 주어절, 피사어절(被使語節(목적어절이라는 것), 그리고, 부사어절의 어간에 통어 자격을 매겨 주는 자격 접미사(資格接尾辭)와 의미만을 부

가하여 주는 통용 접미사^{通用 接尾辭}가 있으며, 서술어절의 어간에 첨가하는 접미사로는, 태상^{態相}, 존대^{尊待}, 시칭^{時稱} 등을 드러내는 양상 접미사^{樣相 接尾辭}와, 문 구조의 표현 양식을 결정하여 주는 양식 접미사^{樣式 接尾辭}가 있다.

그런데, 언어학자 중에는, 한국어의 문 구조에서 문절 구조 **phrase structure**에 분포하는 접미사들이 그 문 구조에서 수행하는 통어 기능과 의미 표출 기능을 굴절어에 들어서는 어미라는 것과 동일시(?)하는 데에서, 한국어 문법을 다루면서도, 비-한국어적인 문법을 말하고 또 세우고 있다.

한국어는 분명히 첨가어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언어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거나, 모르고서, 현대 언어학 이론을 따르는 언어학자들이 전개하는 보편성 **universality** 위주로 한국어 구조도 보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문 구조를 이루는 구성소들이 <문절의 어간은 어간으로서, 접미사들은 각각 접미사로서> 수행하는 통어 규칙과 그들이 표출하는 의미를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하니까, 한국어를 말하는 우리의 사고 방식과 굴절어로 말하는 저들의 사고 방식과의 사이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찾아 내지를 못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첨가어에서 볼 수 있는 접미사^{接尾辭} **suffix**라는 것과 굴절어들에서 볼 수 있는 어미^{語尾} **ending**라는 것과는, 언어 구조상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에 속하는 것들인데, 문법학 가운데에는, 우리의 접미사와 저들의 어미를 동일시(?)하므로, 문법 이론 전개에 큰 오류를 범하고들 있다. 그런 문제는 다른 데에서 다룰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더 다루지 않는다. 다만, 한국어 문법을 연구할 적에, 생성 문법 이론이나, 보편 문법 이론을 끌어서, 문법 연구에 도움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마는, 그 언어 구조들의 틀을 한국어 연구에 덮어 씌울 수는 없다. 언어구조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면, 그 차이점들을 극복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다만, 그런저런 이론들을 끌어서, 한국어의 통어 이론이나 문법 이론 연구의 한 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어법 연구 방법론과 그 방법론을 따른 연구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방법론과 기술로, 한국어의 어법과 통어 이론을 개발하여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야만, 한국어의 통어적 특징을 통어 이론으로 올바르게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국인이 문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함을 실례를 들어가면서,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문 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성소들이 문 구조의 어디에 분포하는가 함을 살펴 본다.

문 구조는 주어절과 서술어절을 서열적으로 배열^{配列}하여서 이룬다. 그런데, 그런 예를 굴절어에 드는 언어로 문 구조를 이룰 적에는, 문 구조의 구성 방식을, 그렇게 쉽게 간단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어의 문 구조 구성 방식을 아는 이들-통어 이론을 연구하는 이들은, 그렇게 간단히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간단히 말하지 않는 것은, 한국어의 문 구조를 구성하는 방식이 저들의 것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저들의 언어 구조와 우리의 언어 구조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문절에 분포하는 접미사들은 다 각각 하나의 형태소로서, 그들이 문 구조에 분포하는 문절 구조에 들어서면, 그들은 각각 그들이 지니고 있는 통어 소성 **syntactic feature**을 따른 통어 기능을 수행함과 함께, 그들이 표출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어의 문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다음의 예문 구조로 한국어

의 생김새를 살펴 본다. 아래에다가, 단순문 구조 單純文 構造/單文 構造로 자동문 구조와 타동문 구조를 들씩 예로 든다.

- 3) 가. 은혜가 내린다. (자동문 구조)
 나. 하늘이 맑다. (자동문 구조)
 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 (타동문 구조)
 라. 그분이 기도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신다. (타동문 구조)

위의 예문 구조들을 보면, 한국어의 **단순문 구조**는 주어절 noun phrase, NP 과 서술어절 verb phrase, VP의 **배열** 配列로 이루고, **주어절과 서술어절은**, 반드시 **문절 구성 규칙**을 따라서, 각각, 문절의 **어간** 語幹에 **접미사** 接尾辭가 첨가 **배합** 配合하여서 이룬다. 문 구조를 이루어서 말을 하는 발화인이, 그 문 구조에 분포하는 주어 구성소가 표출하는 **의미를 보완** 補完하려고 할 적에는, 그 발화인은 문절의 어간의 **통솔** 統率 아래에 있는 **한정어** 限定語 determiner, D나 **한정어절** 限定語節 determinative phrase, DP을 **끝어서** 統솔하여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서술어절에 분포하는 어간 동사의 표출 의미를 보완하려고 할 적에는, 그 어간의 통솔을 받는 **피사어절** 被使語節 object phrase, NP₂ -이를 학교 문법에서는 목적어절이라고 함과 **부사어절** 副詞語節 adverb phrase, AP을 **임의로** 統솔하여서 쓸 수 있다. 피사어절과 부사어절은, 주어절과 함께, 명사절의 하위 분류로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화인은, 발화상 필요할 적에는, 주어절의 어간인 주어가 표출하는 의미를 보완 補完하려고 하여서, 한정어나 한정어절-학교 문법에서는, 이들을 관형사나 관형사절이라고 함을 **끝어서**, 주어가 표출하는 **의미의 표출 범위를 한정하게** 할 수 있고, 서술어절의 어간 동사-동작 동사, 상태 동사, 존재 동사, 지정 동사가 표출하는 의미를 보완하려고 할 적에는, 그 서술어-서술어절의 어간 동사만을 서술어라고 함은 부사어나 부사어절을 **끝어서**, 어간 동사가 표출하는 **의미의 표출 범위를 한정 보완**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그 서술 동사가 타동사일 적에는, 그 서술어의 표출 의미를 보완하려고 하여서, 반드시 **보완 문절** 補完 文節 complement phrase, CP인 **피사어절** 被使語節을 필수적으로 **끝어서**, 주어에 대한 서술어의 표출 의미를 보완할 수 있다.⁸⁾

8) 필자가 여기에서, **보완어**, **보완 문절**이라는 것은, 대체로, 학교 문법가들이 **수식어**, **수식어절**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나는 현대 언어학적인 견지에서, 이들을 **보완어**, **보완 문절**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나는, 학교 문법가들이 **수식어**, **수식어절을 보는 관점**을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통어 이론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 구조에 분포하는 명사절의 어간이 표출하는 의미의 본질을 생각하면, 그 어간 명사들은 자기가 표출하는 말의 의미를 수식하는 말로 수식어나 수식어절을 부려서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어간들이 **끝어서 통솔**하는 말-보완

주어절이나, 부사어절, 그리고, 피사어절의 어간은 명사류어에 드는 명사, 대명사, 수사, 수명사들로 구성한다. 명사절의 어간에 첨가하는 접미사는 **자격 접미사** case suffix들과 **통용 접미사** common suffix들로 구성한다.

자격 접미사는, 그것이 가서 첨가한 어간 명사에 **통어 자격**-주어격, 피사어격, 부사어적을 매겨 주는 통어 기능을 수행함과 함께, **접미사가 표출하는 의미를 그 어간 명사에 첨가하여 준다.** **통용 접미사**는 그것이 지니는 의미만을 그 어간에 부가_{附加}하여 준다. 통용 접미사는 통어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구성소다.

그리고, **통용 접미사의 통어적인 특징**은, 그것이 **분포하는 방식**이 폭 넓다. 그 중의 더러는 명사절에도 분포하고, 동사절에도 분포한다. 그러하므로, 그들을 통용 접미사라고 한다.

특히, **성서 번역인들이 유의할 점**은, 한국어의 문 구조에 들어서는 접미사들은, 다 각각 다른 형태소인데, 그 어떤 것이든지 문절 구조에 분포하여 들어서면, 자기가 표출할 **표출 의미**를 표출함과 함께, 문법 기능/**통어 기능**을 수행함이 통어적 특징이다. 그런 점은 굴절어에 드는 언어 구조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구조적 특징**이다. 그런 특징은, 첨가어에 드는 언어들에 공통으로 지니는 **공통성**_{共通性}이다. 곧, 언어학자들이 여러 나라 말에 있는 접미사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보는 눈이 우리와 서로 다르다는 말이다. 특히, **한국어의 접미사들은, 의미 표출 기능과 통어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이다.

서술어절의 구성 방식은 서술 동사 predicate verb와 서술 접미사 predicate suffix들의 배합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그 어간 동사에는, 동사류에 드는 **동작 동사**_{動作 動詞}, **상태 동사**_{狀態 動詞}-형용사라고 하던 것, **존재 동사**_{存在 動詞}, **지정 동사**_{指定 動詞}들이 그 하위 단위로 있다. 그리고, **서술 접미사**에는, 서술 양상_{樣相}을 나타내는 양상 접미사_{樣相 接尾辭} aspect suffix와 표현 양식을 나타내는 양식 접미사_{樣式 接尾辭} style suffix들이 있다.

곧, 서술 접미사는, 그것이 가서 붙는 어간 동사가 주어에 대한 동작, 상태, 존재, 지정, 등을 서술할 적에, 그 어간 동사가 **채 서술하지 못하는 서술 양상**_{敘述 樣相}과 서술 양식_{敘述 樣式}, 등의 통어 기능을 그 어간에 부가하여 주면서, 그 어간과 함께 동사절을 이루어서, 주어에 대한 동작, 등을 서술하는 서술 기능을 수행한다.9)

어, 보완 문절-은 그들이 표출하는 의미를 보완 한정하는 한정성을 띤 말들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놓고서는 나의 **한국어 통어 구조론 연구**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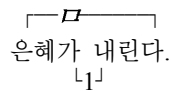
통어 기능면으로 보면, 주어절의 어간으로 분포하는 주어는 서술어절의 어간으로 분포하는 서술 동사에 첨가하는 서술 접미사(들)을 통솔하여서, 서술어의 통어 기능을 돕고, 서술어는 그 문 구조에 분포하는 주어, 피사어, 부사어에 첨가하는 자격 접미사를 통솔함으로, 그런 어간 명사로 하여금, 각각, 주어, 피사어, 부사어로서의 통어 자격을 수행하게 하면서, 그들의 통어 기능을 돕는다. 그런 점은 첨가어들이 지니는 통어 이론의 공통성이고, 특성이다.

그러면, 한국어의 문 구조의 구성 방식은 어떠한가. 이를 이해하기 쉽게 하여 보려고 하여서, 다음과 같은 문 구조 구성의 구조도를 이용한다. 위에 예로 든 예문 구조들을 여기에 끌어서, 도해하여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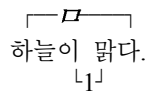
4) 문 구조를 구성하는 방식을 문 구조 구성 구조도(줄여서, 구조도)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A. 예문 구조와 구조도의 구성 방식:

가. 은혜가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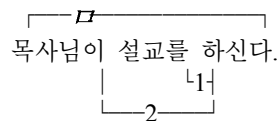


나. 하늘이 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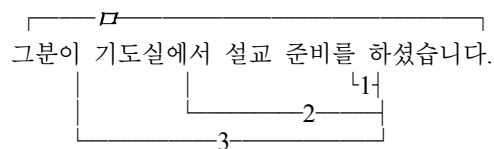


(이상은 자동문 구조임.)

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



라. 그분이 기도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상은 타동문 구조임)

위에 예로 보인 문 구조의 구성 방식을 구조도^{圖解}로 그려 보았다. 그 구조도들을 보면, 위에 보인 예문 구조들이 다 동일한 방식으로 문 구조를 이루

9) 이들을 놓고서는, 필자의 한국어 통어 구조론 연구, 제5 단원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람. 이 책은 신춘에, 서점에 나올 것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곧, 주어에서 시발^{始發}한 상관성선^{相關性線}이 서술어의 어간 동사에 첨가한 서술 접미사에 가서 멈추었음과, 서술어에서 시발한 상관성선들이, 각각, 피사어, 부사어, 주어에 첨가한 자격 접미사에 가서 멈추었음을 본다. 그것은, 그 문 구조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상대어에 첨가하여 있는 구성소-서술어가 주어에 대하여는 자격 접미사를, 주어가 서술어에 대하여는 표현 양식 접미사의 하나인 종결 접미사를 통어 기능으로 통솔함으로, 그 주어와 서술어는, 각각, 자기의 상대어로 하여금, 상대어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심층 구조**^{深層 構造}로 다져 보면, 그 문 구조에 분포한 **주어**는, 상대어인 서술 동사의 통솔^{統率} government 아래에 있는 주어 자격 접미사^{主語 資格} 接尾辭/主格 接尾辭를 맞아들임으로, 그 주어는, 그 문 구조에서, 주어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서술어**는 상대어인 주어의 통솔 아래에 있는 서술 접미사를 맞아들임으로, 그 문 구조에서, 서술어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말한다.¹⁰⁾ 그러므로,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들은 그 어떤 것이든지 독존^{獨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구성소와 상대적 상관 관계성을 지녀야 한다. 그런 구성소는, 그런 상관성을 지니면서 문 구조에 분포하여 있을 적에, 비로소, 그 문 구조에서 일정한 위치에 분포할 수 있으며, 그런 구성소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그 문 구조에 분포하는 주어와 서술어는, 각각, 상대어와 상관성을 지니려고 하면, 상대어에 첨가하여 있는 접미사들을 자기의 통솔 아래에 두어야 하는데, 그 둘은 상대어에 첨가하여 온 접미사들이 없으면, 그 둘은, 각각, 주어로서, 서술어로서의 통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런 심층 구조로 이룬 **기저문 구조** base sentence strcture를 표층 구조 surface sentence structure로 전환하여서 이룬 표층문 구조를 구조도 위에 올려 놓고서, 심층으로 보던 상관성을 상관성선으로 그려 놓고서 살펴 보면, 그 문 구조에 분포한 **주어에서 시발한 상관성선**이 그 문 구조에 분포한 서술어절의 어간 동사에 첨가한 서술 접미사에 가서 멈추었음을 본다. 그것은, 하나의 문 구조에서, 그 문 구조에, 각각, 동작주^{動作主}, 상태주^{狀態主}, 존재주^{存在主}, 지정주^{指定主}로 들어선 주어가 수행하는 동작, 상태, 존재, 지정, 등을 서술어절로 들어선 어간 동사-동작 동사가 그런 것을 온전히 서술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10) 서술 동사와 그의 통솔을 받는 피사어절과 부사어절들과의 관계도 위에서 보인 통솔 이론과 동일한 이론으로 보아 주시기를 바랍.

서술어절의 어간 동사는 상대어의 그런 동작, 등의 중요 개념만을 표출하여 주고, 그 밖에, 그 서술 개념을 더욱 분명히 하려고 하여서, 그 서술 어간 동사에, 서술 양상 접미사樣相 接尾辭와 서술 양식 접미사를 배합하여서, 그들과 함께 서술어절로서의 표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문 구조를 이루는 문절의 구성소들은, 다 각각, 그 문 구조에 분포하는 다른 상대 구성소들과 가능한 **상관성과 상보성**相補性 **complimentality**을 지니면서, **공존**한다.

그런 **공존**共存, 또는 共起 **coexistence/cooccurrence**은, 마치 사람이 한 사회에서, 일정한 자리에 분포分布하여서, 다른 사람-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더불어, 상관성을 지니면서, 서로 상보적相補的인 존재로 있어야 함과 같다. 그리하여서야, 그 존재 구성소는,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역할-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더불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상관 상관계성을 지니고서, **한 사회에 공존하여 있음과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함**을 본다.

그것은, 곧,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들이, 각각, 자기가 분포하여 있어야 할 자리에서, 다른 구성소(들)과 **상관성과 상보성**을 지니고서, **공존하여야 함과 같다**.

따라서,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들은, 그 어떤 것이든지, **남을 통솔하는 것은 그 통솔을 받는 것에 의존**依存한다. 곧, 언어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는, 그 어떤 것이든지, 다른 구성소와 더불어 <통솔과 의존>과 같은-동일한 동시적 규칙 아래에서 존재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구성소들이 그 문 구조에서 수행하는 통어 기능을 구조도 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필요로 할 것이다.

1.3.2 문 구조에 분포하는 문절들과 그 구성소 구조

-특히, 주어절과 서술어절의 구성 방식 방식을 중심으로

문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주어절과 서술어절**이 그것이다. 그런데, **주어절의 구성 방식**은 서술어의 통솔 아래에 있는 자격 접미사들의 통어 소성을 따라서, 그 하위 분류를 결정하고, **서술어절의 구성 방식**은, 그 문절에 어간으로 분포하는 동사들의 통어 소성을 따라서, 그 하위 분류를 결정한다. 그리고, **주어절을 구성하는 방식과 피사어절, 부사어절을 구성하**

는 방식이 구조적으로 공통성을 띠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흔히 **명사절** **ㄷ**이라고 부르며, 서술어절에 분포하는 **문절의 어간들**은 그 통어 소성을 따라서 하위 분류를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서술 동사들이 문 구조에서 수행하는 통어 기능이 동일하므로, 이들을 모두 **동사절** **ㄷ**에 포함시킨다.

그런데, 서술어절의 어간 동사들이 지닌 **통어 소성**은 그 어간 동사로 하여금, 문 구조에 문절이 분포할 적에, 주어에 대한 서술 기능을 분할시켜 준다. 그런 소성에는, **동작성** 動作性, **상태성** 狀態性, **존재성** 存在性, **지정성** 指定性, 등이 있다. 그런 소성을 따라서 분할한 동사에는, **동작 동사**, **상태 동사**, **존재 동사**, **지정 동사**가 있다. 그 중에서 동작성을 띤 동작 동사에는, 그 소성의 하위 분류로 **자동성** 自動性과 **타동성** 他動性으로 분할하는데, 자동성을 띤 동사에는 **자동사**가 있으며, 타동성을 띤 동사에는 **타동사**가 있다. 동작 동사의 통어 소성으로 말미암아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하는 것은, 이 지구에 살아 있는 언어 구조에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네 가지의 동사류 중에서, 자동성을 통어 소성으로 하는 것에는, 자동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상태 동사나, 존재 동사, 그리고, 지정 동사까지도 다 자동성을 띠고 있다.

여기에서 동사들의 통어 소성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문 구조에 들어서면, 주어가 수행하는 동작, 존재, 상태, 등에 대한 서술어의 **논증** 論證 argument에 중대한 역할-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문 구조에 분포하는 서술 동사가 주어의 동작, 등을 논증할 적에, 그 **논증항** 論證項-줄여서 **논항** 論項으로 피사어절, 부사어절, 등을 끌어서 통솔함으로, 주어에 대한 서술 기능을 보완함과 함께 확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론이 한국어의 통어 구조 이론 속에 들어 있음을 찾아 세움으로, 한국어의 논리성은 더욱 분명하여 가고, 한국인의 언어로 말미암은 논리성은 이 지구촌에서 빛을 보게 됨도, 그 저 우연으로 얻은 결실은 아닌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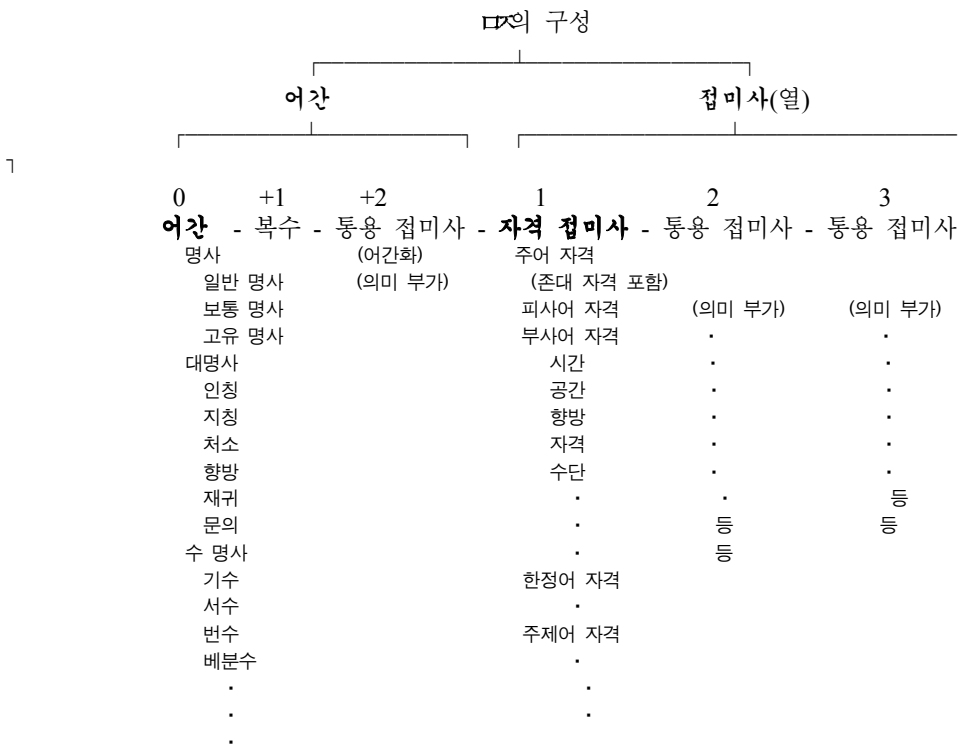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 구조를 이루는 문절 구조의 짜임새를 잘 살펴 두어야 하겠다. 한국어의 문 구조를 이루는 문절들의 구조적 특징을 알지 못하면, 한국어의 귀한 언어적 특징도, 한국어의 논리 구조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절 구조는 문 구조의 핵을 이루는 명사절과 동사절인데, 그 구성 방식을 아는 것이 한국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므로, 그 구조들을 여기에서 간략하게 살펴 보려고 한다. 피사어절과 부사어절, 그리고 한정어절의 구성 방식도 명사절의 구성 방식과 기본 틀은 거의 같으므로, 명사절 구성 방식에서, 그 구조적인 면모를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므

로, 나머지 구조들은 이와 견주어 보면서 미루어 보시기 바란다. 그러므로, 나머지 문절 구조의 설명을 여기에서는 줄인다.

명사절의 구성 방식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하려고 하여서, 이들을 구성 공식과 도해하여서 보이면, 다음에서와 같다.

5) 가. 명사절의 구성 공식: □자 → □자

나. 명사절의 구성 방식: 구성소들의 배합 서열과 그 통어 기능을 도해하여서 보임.



다. 명사절 구성 방식의 예:

- | | | | |
|---------|---------|---------|---------|
| a. 주어절 | b. 피사어절 | c. 부사어절 | A. 한정어절 |
| 학생이 | 책을 | 학교에 | 너희의 |
| 학생들이 | 책들을 | 학교에서 | 너희들의 |
| 학생들만이 | 책들만을 | 학교에서까지 | 너희들만의 |
| 학생들까지만이 | 책들까지만을 | 학교에서까지도 | 너희들까지만의 |

위에서 보면, 명사절의 구성 방식은, 문절의 어간 명사에, 자격 접미사를 첨가하고, 거기에, 발화상 필요한 의미를 부가하여야 할 적에는, 발화인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통용 접미사를 부가하여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문절의 어간 명사에는, 통어 자격 접미사를 반드시 첨가하여야만, 그 문절의 통어 기능이 무엇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어절과, 피사어절에서는 어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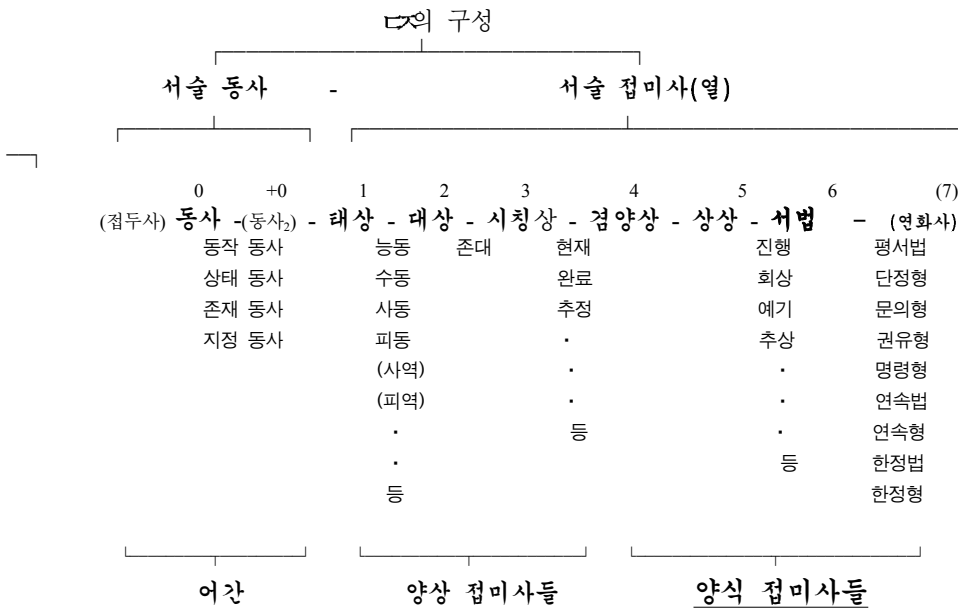
참가하는 자격 접미사 앞에 복수 접미사와 그 밖의 통용 접미사의 일부가 가서 첨가할 수 있지만, 부사어절에서는, 어간 명사 다음에 반드시 부사어 자격 접미사를 첨가하고, 그 다음에 통용 접미사를 부가함을 본다. 그것은, 문절의 구성 방식에, 그런 서로 다른 배합 규칙이 있음을 보인 것이다.

다음의 6)으로, 하나의 문 구조에서, 서술어절로 분포하는 서술 동사절의 구성 방식에서는, 그 동사절을 구성하는 구성소들이, 일정한 배합 서열을 지킨다. 여기에서, 구성소들의 분포 서열이라고 함은, 그 문절을 이루는 구성소들의 배합 순위를 의미한다.

6) 가. ㄷ의 구성 공식: 구성소들의 배합 서열대로

ㄷ→[어간ㄷ][서술 접미사열[양상 접미사열 대상·대상·시상][양식 접미사열겸양상·상상·서법]]

나. 도해: ㄷ의 구성 방식을 도해하여서 보임.



동사절의 구성 방식을 ‘6)가’의 동사절의 구성 공식과 ‘6)나’의 도해를 보면서, 문 구조에 분포하는 동사절을 구성하는 구성소들에는, 어떤 이름을 지닌 것이 있으며, 그 구성소들이 그 문절 구조에서 어디에 분포하고, 어떤 통어 기능을 수행하는가, 함을 짚어 본다.

그런 구성소들이 문절 구조에 분포하는 방식을 ‘6)나’에 보인 도해로 살펴 보려고 하여서, 그 구성소들에 각각 배합 서열을 숫자로 표시하여 보인다. 곧, 어간 동사는 0으로 표시하고, 이른 바, 강조 접미사라고 하는 제2의 어간 동사-예: {뜨리-}, {치-}는 +0으로 표시한다. 서술 접미사들은, 각각, 그 분포 순위를 따라서, 1, 2, 3, 4, 5, 6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그 문절 구조의 맨 마지막

막에, 발화인이 임의로 첨가시킬 수 있는 연화사^{軟化辭} softner는 괄호로 묶고, 배합 서열을 (7)로 표시하여 보인다. 여기에서, 강조 접미사를 +0으로 표시한 것은, 그것에 해당하는 구성소는 타동사에서 전성하여 들어선 것인데, 흔히, 한국 문법가들은, 그것을 강조 접미사 {뜨리-}나 {치-}로 다루는 것임을 보이려고 하여서¹¹⁾, 이를 +0으로 표기한다.

서술어절 predicate phrase인 **동사절** verb phrase, VP의 **어간**으로 분포하는 동사에는, 그 하위 분류로, 1) 동작 동사^{動作 動詞} 또는 행동 동사 action verb, AV, 2) 상태 동사 state verb 또는 description verb, DV -전통 문법에서 형용사로 다루는 문절의 어간들의 한 부분, 3) 존재 동사 existence verb, EV, 4) 지정 동사 identification verb, IV가 있다.

동사절의 구성 방식은, 그 어절-또는 문절 phrase의 **어간 동사** verb stem가 분포하고, 거기에, **서술 접미사** predicate suffix-종결 접미사를 첨가하여서 이를 수도 있고, 발화인이 발화상 필요함을 따라서는, 그 어간 동사에, **양상 서술 접미사들**^{樣相 接尾辭} aspect suffixes과 **양식 서술 접미사들**^{樣式 接尾辭} stylistic suffixes, 그 양식 접미사 끝에, 서법 서술 접미사 mood predicate suffix도 포함함을 서열적으로 배합하여서 이를 수도 있다. 둘 더되는 서술 접미사들이 일정한 배합 서열을 지키면서 배합하면, **서술 접미사열** predicate suffix string을 이룬다.

문 구조의 서법^{綴法} mood-줄여서, 서술법^{敘述法}에는, **평서법** declarative mood ^{平綴法- 직설법 또는 단정법이라고도 함.} **연속법**^{連續法} contiuitive mood-접속법이라고도 함, **한정법**^{限定法- attributive-determinative mood-관형법이라고도 함}의 세 가지가 있다. 따라서, 동사절의 어간 동사 verb stem에 첨가하는 서술 접미사들 predicate suffixes에는, 문 구조의 기본 형태를 이루는 서법을 따라서, 세 가지 하위 분류를 이루는데, 1) **평서법으로 쓰는 서술 접미사들**과, 2) **연속법으로 쓰는 서술 접미사들**과, 3) **한정법으로 쓰는 서술 접미사들**이 있다.

평서법 서술 접미사에는, 1) **단정형 접미사**^{斷定 接尾辭} assertive suffix, 2) **문의형 접미사**^{問議 接尾辭} interrogative suffix, 3) **권유 접미사**^{勸誘 接尾辭} optative suffix,

11) 발화인이 타동사를 선택하여서 서술 동사의 어간으로 삼을 적에, 그 표출 의미를 강조하려고 하면, 동일한 통어 소성 **ㄷ**-타동사성을 지닌 타동사를 끌어들이어서, 그와 함께 복합 타동사 어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예: [{깨-}₁{뜨리-}₂] → {깨뜨리-}, [{빠-}₁{치-}₂] → {빠치-}, 등. 이 때에, 제2 어간 {뜨리-}₂와 {치-}₂를 강조 접미사로 다루는 이도 있음.

4) 명령형 접미사 imperative suffix로 쓰는 서술 접미사들이 있다.

연속법 서술 접미사에는, 연속형 접미사 continuative suffix로 쓰는 서술 접미사들이 있다.

한정법 서술 접미사에는, 한정형 접미사 attributive-determinative suffix로 쓰는 서술 접미사들이 있다.

특히, 서술 접미사에서, 서법으로 쓰는 서술 접미사들, 곧, 평서법 종결 접미사들 平敘法 節終結 接尾辭과, 연속 접미사들 連續 接尾辭과, 한정 접미사들 限定 接尾辭은 문 구조에 분포하는 서술 동사절 구조의 필수적 요소다.

그리고, 서법 서술 접미사들 중에서, 앞의 세 가지를 도거리로 일러서 양상 접미사 樣相 接尾辭 aspect suffixes라고 하고, 뒤의 세 가지 접미사들을 연이어 배합하여서 이룬 [(양상)-(상상)-종결 접미사(열)]을 일러서, 양식상 접미사 樣式 相 接尾辭 modality suffix, 또는, 양식 접미사열 樣式 接尾辭列 modality suffix string이라고 한다.

양상 접미사들 aspect suffixes에는, 1) 태상 접미사 態相 接尾辭 voice-aspect suffix-이를 역상 접미사 役相 接尾辭로 다룰 수 있음, 2) 존대 접미사 honorific-aspect suffix-또는, 대상 접미사 待相 接尾辭, 3) 시칭상 접미사 時稱相 接尾辭 time-aspect suffix-또는, 시상 접미사가 있다.

양식 접미사들 stylistic suffixes에는, 1) 겸양 접미사 謙讓 接尾辭 modesty suffix-또는, 양상 讓相 接尾辭, 2) 상상 접미사 狀相 接尾辭 state-aspect suffix와 3) 서법 서술 접미사들 mood suffixes이 있다.

동사절에 어간으로 분포하는 동사가 발화인이 발화상 필요함을 느끼거나 인식함을 따라서는 접두사 接頭辭 prefix를 끌어서 쓸 적이 있다. 그럴 적에는, 그 접두사를 그 어간 형태소 앞에 붙여서 쓴다. {가-} → {안가-}, {잡-} → {줄잡-}와 같다.

1.3.3 한국어의 구조적 특징과 문 구조에 분포하는 문체 구성소

- 표형 양식 접미사들의 배합으로 이룬 문체 구성소

언어 구조 외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하겠다. 한국어의 문 구조에, 표형 양식을 드러내는 문체 구성소 구조가 들어 있다, 고 하는 것은, 한국인인 나에게는 그렇게 고맙고, 고마울 수밖에 더 없다. 남들은 자기가 표출하는 말이나 글에, 자기 나름대로의 문체를 이루어 가려고, 기저문 구조를 전환문 구조로 표출하려고 할 적에는, 문 구조에 분포하는 어휘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든지, 그런 어휘와 거의 비슷한 어절을 끌어 들여서, 대체하여서 쓰든지, 문 구조에 분포하는 어절 하나를 그 문 구조의 선두로 이동하여서 쓰면서(이동 규칙 적용), 자기 나름대로의 멋을 글 위에 엮는다. 그런 규칙

을 적용하는 일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므로, 그들은 그야말로 그런 일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런데, 우리는 나서 자라면서,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버이와 이웃 어른들부터, 언어로 표출할 수 있는 표현 양식을 다 익혀 버렸으니, 어찌 고맙지 아니하리오.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앞 항목 ‘6가’에 보인 동사절의 구성 공식을 보면, 그런 고마움을 마음에 지닐만 하다. 그런 동사절 구성 공식을 보면, 다른 언어 구조에서는 볼 수 없는 **문체 구성소 구조**가 우리 동사절 구성 공식에 들어 있음을 본다. 그러면, 그 공식을 여기에 옮겨서, 그런 구성소들이 어디 분포하는가, 함을 살펴 본다.

7) $\square \rightarrow$ [어간 \square] [서술 접미사열 [양상 접미사열 태상·대상·시상] [양식 접미사열 겸양상·상상·서법]]

위에 보인 동사절 \square 구성 공식을 어떻게 읽을까. [동사절은, 그 문절의 어간 동사에, 서술 접미사열을 첨가하여서 이루고,] [서술 접미사열은, 양상 접미사열에, 양식 접미사열을 연이어 배합하여서 이룬다.] [양상 접미사열_{樣相接尾辭列}은, 태상_{態相}·대상_{待相}·시상_{時相} 접미사들을 연이어 배합하여서 이루고,] [양식 접미사열_{樣式接尾辭列}은, 겸양상_{謙讓相}·상상_{狀相}·서법_{敍法}·(연화사_{軟化辭})를 연이어 배합하여서 이룬다.]

한국어의 문 구조의 구조적 특징이 무엇이나, 함을 놓고서는, 구조 언어학자나 생성 문법가나, 논리학자, 수리 논리학자들 가운데에서는, 60대에 들어서면서, 더러 논란하기를 비롯한 것 같다. 곧, 한국어의 문 구조를 이룬 구성소 중에서, 그 문 구조에 분포하는 어간 명사와 어간 동사는, 명제 논리_{命題論理} propositional logic 구조에서도, 문 구조의 핵으로 보는 눈이 생겼지마는, 문 구조에 분포하는 명사절의 어간과 동사절의 어간에 첨가하는 자격 접미사-이른 바, 격 조사라는 것-와, 서술 접미사-이른 바, 종경 어미라는 것-가 수행하는 통어 기능을 놓고서는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서술 논리 이론을 전개하는 이론들에서도, 한국어의 자격 접미사가 수행하는 통어 기능을 아직까지 두렵이 풀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서술 접미사들이 수행하는 통어 기능을 놓고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저들의 모어의 문 구조에서는, 그런 구성소들이 표출문 구조에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한국어의 자격 접미사의 통어 기능을 **문절 표지** 文節標識 phrase marker -생성 논자들은 이를 구 표지_{句標識}로 불- 정도로 이해하고들 있다.¹²⁾ 그것은, 저들이 한국어와 같은 첨가어와 저들

12) Matthews, P.P.(1981),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60-1. 기

의 모어인 굴절어의 특징을 분명히 살펴 보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두 언어 구조들의 차이점들을 분명히 설명할 수 없다.

한국어의 문 구조에서, 명사절에 분포한 어간 명사들에, 자격 접미사들이 각각 가서 첨가하면, 그 자격 접미사들은, 각각, 그 어간 명사로 하여금, 주어, 피사어, 부사어, 또는 한정어로서의 **통어 자격을 매쳐 주고,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통어 기능을 수행하게 하며, 그리고, 그들이 그 문 구조에서, 그런 통어 자격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서술어절의 어간으로 분포한 어간 서술어의 통어 소성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화인이 표출한 그 문 구조에서, 서술어절에 분포한 서술 접미사들은, 각각, 그 어간인 서술어가 주어에 대한 서술 동사절의 어간으로서, 주어가 수행하는 동작, 상태, 존재, 지정, 등을 서술하되, 발화인이 상대인을 누구라고 의식하거나 인식하는 순간에, **기저문 구조에서 표출문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 transformation process**에서, 상대인이 그 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 양식을 선정하여서 그 어간 동사에 첨가하고, 그 서술 접미사들은 그 어간 동사와 함께 서술어절을 이루어서, 주어의 동작, 상태, 존재, 등을, 각각 서술한다.

이상의 설명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한국어의 문 구조에서, 명사절에 분포하는 **자격 접미사들**과 서술 동사절에 분포하는 **서술 접미사들**이 그 문 구조에서 수행하는 통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고 함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국어의 문 구조에서, 그런 자격 접미사들과 그런 서술 접미사들이 수행하는 통어의 기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어법 연구는 물론, 그 구성소들의 용법에 마음을 쏟았다. 그것은 곧, 한국어의 표현 구조에서, 그런 접미사들이 그 문 구조에 분포하면, 그들이 지닌 통어 소성을 드러냄과 함께, 자기들이 지닌 의미 표출 기능을 발휘하여서, 자기들이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어의 문 구조에 들어선 표현 양식 접미사들**은, 그 문 구조에서 어디에 어떻게 분포하여서, 어떤 통어적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의미를 표출하는가, 함을 아래에서 다져 본다.

우리는 이미 ‘6가’에 올려 있는 동사절 구성 공식에서, 그런 표현 양식을 드러내는 접미사가 있음을 보았다. 그런 접미사들이 문 구조에 분포하는 실

례를 들고, 그런 접미사열이 수행하는 통어 기능과 그들이 드러내는 표출 의미를 살펴 본다.

8) A. 예문 구조	B. 예문 구조에 들어선 서술 종결 접미사
a. 구역장이 경주로 이사갔다.	{-다}
b. 구역장이 경주로 이사갔어	{-어}
c. 구역장이 경주로 이사갔네.	{-네}
c1. 구역장이 경주로 이사갔소.	{-오} / {-소} < {-스오}
e2. 구역장이 경주로 이사갔어요.	{-아요} < {-아} + {-요}
d1. 구역장님이 경주로 이사가셨습니다.	{-네이다}
d2. 구역장님께서 경주로 이사가셨습니다.	{-습니다} < {-스입니다}

기저문: 구역장이 경주로 이사갔다.

{-다}

8)에 보인 ‘a에서 d2까지’의 일곱 가지 예문 구조들이 표출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구역장이 경주로 이사갔다]-기저문 구조로서, 하나다. 그것은, 발화인이 어떤 상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을 담은 단순문 구조로 이룬 문 구조다. 그 기저문 구조 base sentence structure는, 발화인의 사고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가능한 문 구조다.

그런데, 그 발화인이 자기의 그런 말을 들을 상대인을 만나는 순간에, 발화인은 그 상대인의 인격-품격, 나이, 사회적 지위, 교회 경력, 등을 생각하여서, 그 말을 기저문 구조대로 하지 않고서, 자기가 표출할 말의 표현 양식을 생각한다. 그리고 또, 자기의 대화말을 듣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 순간에, 발화인은, 자기가 말할 말에다가, 자기가 말로 표시하여야 할 예법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서 이룬 표출문 구조는, 위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일곱 가지 가능한 표현 양식으로 표출문 구조로 말을 할 수 있는데, 발화인은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서 말로 표출한다.

곧, 우리는, 우리가 마음 속으로 생각한 말인 [기저문 구조]를 상대인을 만나는 순간에, 상대인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전환하여서, [표출문 구조]로 표출한다. 그런 사고 과정에서 비롯한 기저문 구조를 표출문 구조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모두를 전환 과정 轉換過程 transformation process이라고 한다.

한국인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일지라도, 그런 기저문 구조를 표출문 구조로 전환하는 훈련을 받아 온다. 우리는 그런 훈련 과정을 아무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거쳐 오고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는 문 구조에는, 위에서 예로 보인 일곱 가지 표현 방식이

분포되어 있다.

곧, 기저문 구조를 표출문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말의 예절을 담은 표현 양식 접미사열**을 표출문 구조에 얹는다. 그런 전환 과정을 거치는 것은, 거기에는, 발화인과 상대인 사이에 내재하는 상대적 상관 관계성-상관성이 구성소들의 통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를 수 있는 문 구조들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거기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표현 양식**이 있음을 본다. 필자는, 그런 표현 양식을 한국인이 즐겨서 쓰는 **문체 구조**라고 본다. 곧, 다른 나라 말로 이룬 문 구조에는, 우리가 표출문 구조에서 나타내는 그런 **문체 구성소**와 같은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면, 한국인이 표출하는 문 구조에서, **말의 표현 양식** speech style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분포하는가. 그것은 저 위에서 보인 동사절 구성 공식에서, 서술어절에 분포하는 양상 접미사(열) 다음에, 그런 양식 접미사들이 첨가하여 있음을 본다. 만일, 발화인이 그 서술 동사절에, 양상 접미사를 끌어서 쓰지 않을 적에는, 양식 접미사(열)을 곧 바로 그 어간 동사절에 첨가한다. 그런 양식 접미사열을 아래에서 일람하여 본다. 그런 접미사열은, 일정한 화법 유형 話法 類型 speech pattern으로 다를 수도 있다.

9) 표현 양식을 드러내는 서술 접미사열의 구성 방식

서법 \	정식화법	정식화법의 친교화법	중간화법	평교화법	평교화법의 친교화법	공손화법
평서법	-니이다	-오/-아요	-네	-다	-아	-나이이다
문의법	-니까	-오/-아요	-나	-니	-아	-나이까
권유법	-니시다	-오/-아요	-세	-자	-아	-사이이다
명령법	-니시오	-오/-아요	-게	-라	-아	-소서
(등분)	(극존칭)	(보통존칭)	(보통비칭)	(극비칭)	(반말)	< >

위의 일람표에 들어 있는 표현 양식 접미사(열)은 동사절 구성 공식, 곧, ㅁ즈 → [어간 ㅁ][서술 접미사열 [양상 접미사열 태상·대상·시상] [양식 접미사열 겸양상·상상·서법]]에서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에 분포하는 것들로서, 그들은, 각각, 일정한 서법 mood 아래에 **표현 양식 접미사(열)**로 들어선 것들이다.

일람표에 보면, 서술 접미사에 드는 양식 접미사들은 문 구조의 표현 형식으로 서법 敍法에는, **평서법** 平敍法, **문의법** 問議法, **권유법** 勸誘法, **명령법** 命令法의 네 가지가 있음을 본다. 그런 서법으로 문 구조에 들어서는 양식 접미사(열)들에

도 하위 분류로 다섯 가지의 표현 양식이 있다. 그런 양식 접미사(열)이 화법을 결정하여 주는 요소로 있다. 그런 화법에는, 1) **정식 화법** 正式 話法, 2) **정식 화법의 친교 화법** 親交 話法, 3) **중간 화법**, 4) **평교 화법** 平交 話法, 5) **평교 화법의 친교 화법**이 있다. 이들이 문 구조에 분포하면, 그들은, 문 구조의 표현 양식을 다양화한다. 그 다양화한 표현 양식이, 곧, **문체 구성소들** style constituents/style suffix string이다.

위의 일람표를 보면, 나는 표현 양식을 대화인 사이에서 이루어 가는 말의 화법 방식으로 정식 화법, 정식 화법의 친교 화법, 등등이 있음을 보였다.

정식 화법은 대화인들이 나누는 대화말에, <예의를 정식으로 갖춘 말법>을 서술 양식 접미사로 드러낼 적에 쓰는 화법을 말하고,

정식 화법의 친교 화법은 말에 예절을 갖추기는 갖추되, 대화인의 사이가 정식 화법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사이보다 조금 더 가까울 적에 쓰는 말법-화법이고,

중간 화법은 정식으로 예의 갖추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하여서, 평교간에서 쓰는 화법으로도 표현하지 않을 적에 쓰는 화법을 말하고,

평교 화법은 대화인 사이가 평등한 사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말의 법을 말하고, 곧, 말의 예절을 갖추 필요가 없을 적에 쓰는 말법이고,

평교 화법의 친교 화법은, 대화인 사이가 평교 화법을 쓰는 사람의 사이보다 더 가까울 적에 쓰는 말의 법을 이른다.

공손 화법은, 예전에는, 군신 사이에서, 신하가 임금님, 또는 그와 대등한 대우를 하여 드리는 분에게, 공손한 말투로 말하는 화법을 이르는 말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어로는 거의 쓰지 않지만, 제례를 행할 적에, 조상에게 드리는 현사로 쓴다. 다만,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신앙하는 신에게 기도를 들릴 적에 쓰는 화법을 이른다.

문 구조의 표현 양식을 논하는 분 중에는, 한국어에도, **구어체**와 **문어체**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구어체 口語體라는 것은, 대체로, **평교 화법**으로 이룬 문체를 이르는 말이고, 문어체 文語體라는 것은 **정식 화법**으로 글을 쓰는 사람의 글투를 이르는 말로 알고서, 그런 말을 쓰는 듯하다.

그런데, 그런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하는 것일까. **만일**, 평교 화법을 문어체 文語體라고 하고, 정식 화법을 구어체 口語體라고 하면, 그 나머지 화법은 무엇에 해당하는 화법으로 다룰 수 있을까. 그런 용어는, 일본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한국어의 표현 구조에는, 그런 이름을 붙일 만한 문체

가 없다.

확실히, 일본어에는, 문자로 적어서 읽고 쓰는 글, 곧, 문장어¹³⁾에 문어^{文語}라는 것이 있고, 그런 언어로 쓴 글의 문체를 문어체^{文語體}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 위에 보인 화법으로 쓰는 말의 표현은 다 입말-구어체로도 쓰고, 글말-문어체로도 쓴다. 그것이 한국어 표현 구조의 실상이고, 어법적 특징이다.

이웃나라 일본 사람들의 표현 구조에는, [문어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현대 일본어와는 어법적으로 아주 다른 말투에 속한다. 그런 말투/글투는 지금에 와서는, 일본 <시대극>에서나 보고 들을 수 있을 정도다. 따라서, 저들에게는 문어체 문법이 따로 있고, 구어체 어법이 따로 있다. 그들은 문어체와 구어체를 섞어서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인인 우리는 한국어의 문 구조에 들어선 다섯 가지의 표현 양식을 모두 입말로도 쓰고, 글말로도 쓸 줄 명기^{明記}한다.

1.3.3.1 구조도 위에서 보는 문체 구성소의 분포 방식

- 주로, 상대적 상관 관계성 아래에서

이 항목에서는, 구조도^{圖解} 위에서, 문 구조를 이루는 구성소 사이에 내재^{內在}하는 상대적 상관 관계성^{-相對的 相關 關係性} coorelative relations of the relativity을 살펴 본다.

앞 항목에서, 6)에 보인 구조도에서, 서술 동사절을 구성하는 방식을 보면, 그 어간 서술 동사에 첨가하는 서술 접미사열에, 두 가지 중요한 구성소(열)이 있음을 본다. 그 하나는 어간 동사에 첨가하는 양상 접미사(열)이고, 다른 하나는, 거기에 연이어서 첨가하는 표현 양식 접미사(열)이다. 그 두 접미사열 중에서, 문 구조의 표현 양식을 결정하여 주는 것은 양식 접미사열 <(4)-(5)-(6)-7>이다. 괄호를 친 접미사들은, 발화인의 의사를 따라서, 그 어떤 접미사든지 생략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곧, 그 동사절 구성 방식에서, 그런 접미사열이 문체-표현 양식을 구성하여 주는 접미사열이다.

그런 동사절의 구성 방식을 구조도에서 보면, 동사절의 구성은, [어간 동사-양상 접미사-양식 접미사]가 서열적으로 배합하여서 이룸을 본다. 그 중에서, 그 양식 접미사(열)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것이 비록 언어 외적 조건으로 문절 구조에 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서술어]나, [어간 동사-양상 접미사]만으로는 주어의

13) 일본 언어사에서는, 헤이안조 시대^{平安朝 時代}에, 문법의 기초로 한문체^{漢文體}를 끌어들이어서 발전시킨 기록어를 말한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문장으로만 쓰는 문체 언어를 말한다.

동작, 상태, 존재, 등을 온전히 서술할 수 없으므로, 그 모자라는 서술 기능을 보완하려고 하여서, 양식 접미사열을 그 [어간]이나, 그 [어간-양상접미사열]에 붙여서, 서술어절을 이루고, 그 양식 접미사열로 하여금, 주어에 대한 서술어절로서의 서술 기능을 수행하게 함을 본다.

그런데, 그 서술어절에서, 그 문 구조의 표현 양식을 결정하여 주는 통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양식 접미사열이므로, 나는 그 양식 접미사열을 그 문 구조에서 **문체를 구성하여 주는 구성소**로 본다.

이를 나의 상관성 이론으로 설명하면, 그 문 구조에서, 그런 양식 접미사열이 그런 자리에 분포하게 된 것은, 주어에 대하여서, [서술어]나 [서술 동사-양상 접미사]가 수행하는 서술 기능만 가지고서는, 주어가 수행하는 동작, 상태, 존재, 등을 온전히 서술할 수 없으므로, 그 주어가 그 문 구조에서 수행하는 그런 동작, 상태, 존재, 등을 서술할 수 있는 **양식 접미사들**을 끌어들이어서, 그 서술어의 서술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그런 보완 작용은, 주어의 통술 기능이 서술어절에 분포하는 양식 접미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곧, 주어가 서술 양식 접미사를 끌어 통술 아래에 두는 것은, 주의 동작, 상태, 등을 서술하는 서술 어간이 수행하는 서술 기능만 가지고서는 모자라므로, 그 모자라는 서술 기능을 보완하여 받으려고 하여서, 주어가 서술 양식 접미사를 끌어서 자기의 **통술**^{統率} government 아래 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 구조에서, 어떤 구성소가 다른 구성소를 자기의 통술 아래에 둬를 나타내어 보이려고 하여서, 나는 그 구조도 위에서는, **상관성선**을 사용하였다. 그 상관성이 비롯하는 곳은 언제나 문절의 어간들이고, 그런 상관성선이 가서 닿는 데가 자격 접미사와 서술 접미사들이다.

그러므로, 문 구조에서, 그런 통어 기능을 시발하는 데는, 언제나 **주어와 서술어**다.

그런데, 그 주어가, 자기의 통술 기능으로 양식 접미사들과 상관성을 지니지 못하면, 그 문 구조의 표현 양식을 결정지을 수 없다, 곧, 그 주어는 서술어절에 분포하는 양식 접미사를 통술하여서, 서술어절에 들어서게 하지 못하면, 그 서술어로 하여금, 자기가 수행하는 동작, 상태, 존재, 등을 온전히 서술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하므로, 그 주어는 서술어절에 분포하는 그런 양식 접미사(열)을 통술하여서, 어간 동사에 가서 참가하게 하고, 그 어간 동사와 함께 동사절을 이루어서, 주어의 기능을 온전히 서술하게 한다. <이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문 구조에서, 그런 접미사들이 서술 어절에 분포하게 하지 않으면, 주어인 자기도 그 문 구조에서 주어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말과 같다>.

곧, 하나의 문 구조에서, 남을 통솔하는 구성소는, 그 통솔을 받는 구성소를 통솔하기는 하지마는, 그 통솔을 받아 주는 구성소가 없으면, 자기의 통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남을 통솔하는 구성소는 자기의 통솔을 받는 구성소에 의존하게 된다. 곧, 그 통솔자와 피통솔자는 그 문 구조에서 서로 상보적 분포 관계(相補的 分布 關係)를 지닌다.

그러면, 한국어의 문 구조에서, 문체로 나타나는 구성소들은 어디에 분포하여서, 어떤 형태를 지니는가, 함을 분명히 살펴 보려고 하여서, 구조도를 이용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문 구조에 분포하는 문절의 구성 방식을 잘 살펴 두는 것이 좋겠다.

문 구조는, 주어절인 명사절과 서술어절인 동사절의 배열로 구성하며, 주어에 대하여서, 서술어절인 동사절이 표출하는 의미만 가지고서는 주어의 동작, 상태, 존재, 등을 온전히 서술 할 수 없으므로, 보완 문절을 끌어들이어서 씬을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아래의 구조도들에서는, 그런 문절들의 분포 방식과 문절 구성 방식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조도에서, 동사절에 분포한 양식 접미사열 위에다가, 사서체(斜書體) 숫자 1,2,3……로 표시한 것들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접미사열의 배합 서열을 보인 것인 동시에, 주어가 양식 접미사열을 통솔하는 순위를 말하는 것이다.

구조도를 보면, 주어에서 시발한 상관성선(相關性線) \square 이 동사절에 첨가한 양식 접미사 1,2,3들에 가서 멈추었음을 본다. 그것은, 주어의 동작, 상태, 존재, 등을 서술하는 서술어절의 어간 동사가 자기가 수행하는 서술 기능만 가지고서는 주어의 동작, 상태, 등을 온전히 서술할 수 없으므로, 그 어간 동사의 서술 기능을 보완하여 줄 서술 접미사들을 주어의 통솔 아래에서 끌어들이어서, 그와 함께 서술어절을 이뤄서, 주어의 동작, 상태, 등을 서술함을 보인 것이다.

그것은, 그 주어가 서술어절에 분포한 어간 동사와 그 어간에 첨가한 양식 접미사들과 상대적 상관 관계성-줄여서, 상관성 correlative relations of the relativity을 지녔음을 보인 선이다. 그런 상관성을 지닌 구성소들이니까, 그런 구성소들은 서로 상대 구성소와 상관성을 지닐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조도에서, 예문 구조 아래 쪽에다가 그런 상관성선은, 서술어절에 분포한 어간 동사에서 시발하여서, 피사어절, 부사어절, 주어절에 분포한 자격 접미사에 가서 멈추었음을 본다. 그런 상관성선에다가는 각각 정수 숫자(整數 數字)로 1,2, 3……등을 매겨 놓았다. (또한 주어와 한정어와 사이에

서 생성하는 상관성도 동일한 상관성선으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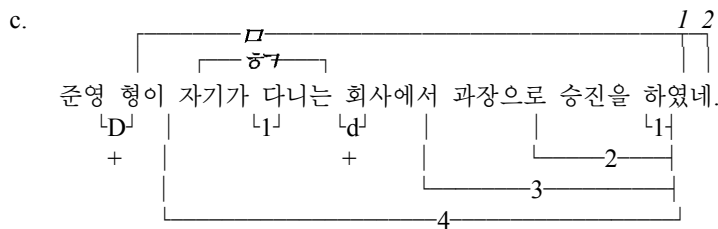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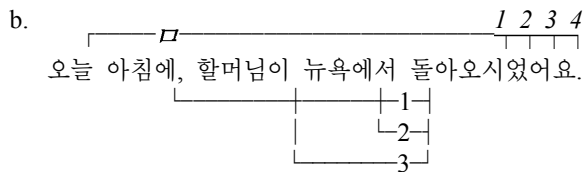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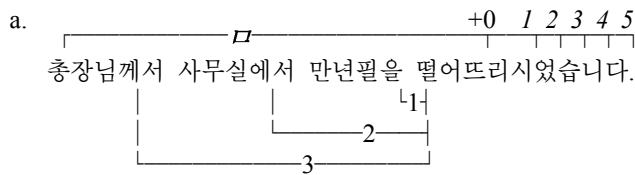
그것은 곧, 서술어가 상대어인 피사어, 부사어, 주어에 첨가한 자격 접미사를 통솔하여 줌으로써, 서술어와 피사어, 그 서술어와 부사어, 그 서술어와 주어와는 서로 상관성을 지니는데, 그 상관성을 상관성선 1,2,3……으로 표시하여 보인다. 그 숫자는 정수 숫자(整數 數字)로 적는다. 그런 상관성이, 각각, 그 서술어와 선행 문절의 어간인 피사어, 부사어, 주어와 사이에 내재하여 있음으로 하여서, 그 어간들인 피사어, 부사어, 주어, 들은 각각 서술어에 대한 논증항(論證項/論項 argument)으로 존재할 수 있다.

구조도를 보면, 주어와 서술어에서 시발한 상관성선들이 가서 멈춘 곳은 <주어의 통솔 아래에 있는 서술 접미사들>과 <서술어의 통솔 아래에 있는 자격 접미사들>임을 볼 수 있다.

10) 가. 예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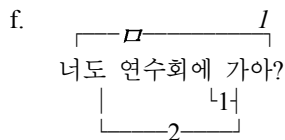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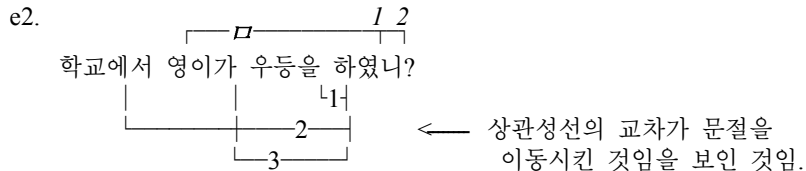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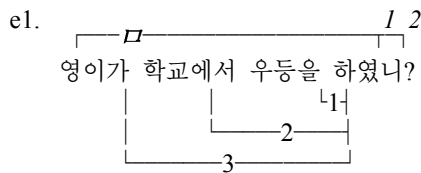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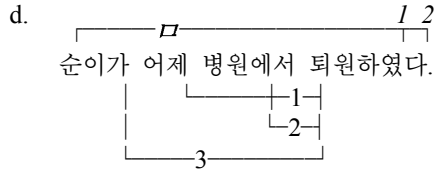
- a. 총장님께서 사무실에서 만년필을 떨어뜨리시었습니다.
- b. 오늘 아침에, 할머니가 뉴욕에서 돌아오셨어요.
- c. 준영 형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였네.
- d. 순이가 어제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e. 영이가 학교에서 우등을 하였니?
- f. 너도 연수회에 가아?

나. 예문 구조:



+ 구조도에서 D는 한정절 **ᄃᆞ**을, d는 한정구절 **ᄃ**을 끝어서 한정어와 한정 구절로 삼았음을 본다.

D는 문 구조에 분포하는 명사절의 어간이 한정절을 끝어서 자기가 표출하는 의미의 표출 범위를 한정하여 받은 것이고, d는 그 문구조에 분포한 서술어절의 어간이 한정 구절 **ᄃ**을 끝어서 자기가 표출하는 의미의 표출 범위를 한정하여 받고 있음을 본다.



위에 올린 구조도를 보면, 예문 구조 위아래로 상관성선을 선으로 그어 놓은 것을 보는데, 그런 상관성선은 본시 표출문 구조에 노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심층 구조에 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표출문 구조에다가 상관성선을 노출시켜서 그려 놓은 것은 구성소 사이에 내재하는 그런 상관 관계성이 있음을 볼 수 있게 하려고 하여서, 필자의 이론을 따라서 구조도를 이룬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그런 상관성은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상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가령, 여기에, 두 가정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가정한다. 각 가정에서, 어린 내외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 둘씩이 다 한 자리에 모였다. 어른과

아이들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상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그 두 가족원들은 서로 틈이 있을 적마다 만나서, 회식을 하거나, 운동을 함께 하고, 또 음악회에도 같이 가고, 때때로 여행도 함께 한다. 그리하니까, 그 가족원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 좋은 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나, 인식한다.

그런데, 그들이 회식하는 어느 날, 거기에, 바깥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방문객으로 끼어 들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가족원들 중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한 사람만을 안다. 그러니까, 그는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 누가 누구의 아내이고,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 모른다. 모르는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 사이에 내재하는 상관 관계성이다. 그것을 줄여서, 나는 상관성이라고 한다.

그런 상관성은, 그 자리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두 가족원들은 그런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안다. 그것은 서로 가까운 사이임을 마음 속으로 느끼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음에서다. 그런 느낌이라든가 인식은 사람의 마음에 내재하는 상관성을 이해하는 마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그런 상관성의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함을 찾아 보면, 그것은 언제나 아빠인 남편과 엄마인 남편의 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상관성은 그들이 결혼하는 순간에 생겨난다. 그 부부가 결혼하는 날, 남편 쪽에서 보면, 그런 상관성이 남편 쪽으로부터 부인 쪽을 행하여서 생기고, 부인 쪽에서 보면, 그런 상관성의 시발점은 부인에게서 남편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남편에게서 시발한 상관성과, 부인에게서 시발한 상관성도 가족원 사이에서 생성한다. 아빠에서 생겨난 상관성은 아빠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엄마에게서 자녀를 향하여 생겨난 상관성은 엄마의 사랑으로 나타난다.

나는 그런 상관성을 사람 사이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구조에서, 찾는다. 곧, 적어 놓은 글에서, 그 문 구조를 이룬 구성소 사이에서, 그와 같은 상관성이 있음을 본 것이다. 그런 상관성을 따라서 나타나는 통어 이론을 알면,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 사이에 내재하는 상관성을 볼 수 있다. 그런 상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을 적에라야, 우리는 그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원 사이에 내재하여 있는 상관성을 볼 수 있게 된다.

문 구조에 내재하는 상관성을 찾아 보려고 하면, 나는 언제나, 문 구조 구성 구조도를 이용한다. 그 구조도 위에 올려 놓은 구성소들 중에서, 어떤 구성소가 다른 어떤 구성소와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가, 함을 먼저 살펴 본다.

곧, 구성소들 사이에 내재하는 상관성을 보면, 그 상관성을 바탕으로 하고서, 구성소들이 수행하는 통어 기능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럴 적에라야, 그들이 표출하는 의미의 근거가 무엇인가 함을 알 수 있다. 곧, 그럴 적에라야,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들이 표출하는 의미를 올바로 알 수 있다. 하나의 문 구조가 표출하는 의미는, 그 문 구조를 이룬 구성소들이 일정한 규칙 아래에 있을 적임을 알기 때문이다.

문 구조에서, 어떤 구성소가 다른 구성소를 끌어당기는 어떤 힘을 쓰고, 또 끌어당김을 받는 힘이 어떤 것이냐, 함을 분명히 볼 수 있을 적에, 우리는 그 문 구조에 분포한 구성소들이 수행하는 통어 기능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 통솔 기능을 분명히 알 수 있을 적에라야, 그런 구성소가 그 문 구조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그 구성소가 표출하는 의미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함을 알 수 있다.

의미의 표출은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들이 다른 구성소와 더불어 일정한 통어 규칙 아래에 있을 적에라야, 그 구성소의 분포가 적합適合함을 알 수 있다. 그 구성소가 사람이라면, 그 때에라야 그 존재가 빛난다.

그와 같이, 곧, 한 사회에서, 남을 통솔하는 사람은 그 통솔을 받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남을 통솔할 수도 없다. 그 말을 역으로 풀면, 하나의 사회에서, [통솔하는 자는 통솔을 받는 자에게 의존한다.]는 통칙通則이 생성한다. 그런 통칙 아래에서, 사람은 오늘도 자기들의 삶을 이루어 가며, 평화롭게 살아감을 본다.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들이 각각 다른 구성소와 가지는 통솔력이 일정한 규칙 아래에 있어야만, 그들은 그 문 구조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다. 그런 공존 co-existence을 **공기** 共起 cooccurrence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 구성소들이 그 문 구조에 일정한 위치에 분포할 적에는, 하나의 구성소는 다른 구성소에 대하여서 **상보적 상관성** 相補的 相關性 complementary relativity을 지녀야 한다. 구성소들이 각각 그 문 구조에서 **상보성** 相補性을 지니고 있을 적에라야, 다른 구성소와 공존할 수 있다. **공존성**은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기본이다.

그런 상관성이 문 구조를 구성하는 구성소 사이에 엄존하여 있을 적에라야, 그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들은 일정한 그리고 **엄격한 통어 규칙 아래**에 있을 수 있다.

그런 구성소들이 하나의 문 구조에서 그런 통어 규칙 아래에 있을 적에라야, 그 구성소들은 그 문 구조에서 적합한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과 함께 **적합한 의미**를 표출할 수 있다.

나는 문 구조에 분포한 구성소들이 그런 통어 규칙 아래에 있는가 함을 다져 볼 적마다,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조건과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함을 살펴 본다. 구성소들이 그런 통어 규칙 아래에서, 일정한 분포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적에라야, 그 문 구조는 적합한 문 구조適合 文 構造 well-formed sentence structure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문 구조에만, 구성 사이에서 안정성이 보인다.

나는 나의 통어 이론을 세우려고 하여서, 그런 상관성을 살펴 본 것이다. 그런 상관성을 바탕으로 하는 통어 규칙을 찾기에 정성을 다 하는 것이다.

언어학자들은, 그런 가정假定 아래에서, 문 구조들을 이루는 구성소들이 지니는 상관성을 살펴 보기 시작한다. 그리하여서, 찾아 놓은 것이 <문 구조를 이루는 구성소 사이에 내재하는 상관성>이다. 그 상관성을 구조화하려고 하여서, 문 구조 안에서, 그 구성소들이 다른 구성소와 가지는 상관성을 면밀히 찾아 본 것이다. 곧, 하나의 구성소는 그 문 구조 안에서 서로 상대하는 어떤 구성소와 어떤 상관성을 지녀야 하는가. 그런 상관성을 지닌 구성소가 문 구조의 어디에 분포하여서, 어떤 통솔 규칙 아래에서, 어떤 통어 기능을 수행하며, 어떤 의미를 표출하는가 함을 찾은 것이다.

문 구조에서 구성소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관성을 바탕으로 하여서 규칙을 찾아 세우면, 거기에 규칙명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하면, 그 규칙의 집합체에 통어 규칙이 존재한다.

그런 상관성을 분명히 하려고 하여서, 구조도 위에다가, 예문 구조를 올려 놓고서,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 사이에 내재內在하는 상대적 상관 관계성相對的 相關 關係性-줄여서, 상관 관계성/상관성을 상관성선相關性線으로 연결하여 가면서, 어떤 구성소가 다른 어떤 구성소와 어떤 상관성을 지니는가, 함을 살펴 본다.

구조도를 보면, ‘10나a’에 분포한 서술 동사 {떨-}에 연결 접미사 {-어}가 첨가하고, 거기에 {들이-}가 첨가하여서 전성 어간 동사 {떨어뜨리-}를 이루었으며, 그 어간 동사에 서술 접미사 다섯이 서열을 지키면서 배합하여서, 서술 접미사열 [-시_{대상-존대}었_{시칭-완료}습_{습겸양}니_{상상-진행}다_{서법-종결}]를 이루고, 그 서술 접미사열이 어간 동사 {떨어뜨리-}에 첨가하여서, 서술 동사절을 이루면, 그 동사절은 주어에 대한 서술 동사절 [떨어뜨리시었습니다]다.

그런데, 그 서술 접미사열 중에서, 대상 접미사待相 接尾辭인 존대 접미사 {-시}가 거기에 들어선 것은, 그 문 구조의 주어인 [총장님]에 첨가한 통어 자격 접미사가 이미 존대 접미사 {-께서}로 대체하여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문 구조에 들어선 주어 존대 자격 접미사와 서술어절에 분포한

대상 접미사^{待相 接尾辭}가 호응^{呼應} agreement 관계를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곧, 그 문 구조에 분포한 접미사들의 일치 관계는, 언어 외적 조건^{言語 外的 條件}으로, 문 구조에 들어서는 것이지만, 그 접미사들은 [[주어절...께서][서술어절 ...시...]]의 존재 호응-또는 일치 concord/ agreement으로, **발화인이 상대인에게 말로 다하는 예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기도 말에다가, 그런 <말의 일치 관계>를 표출하려고 할 적에는, 그 문 구조의 서술어절에 분포하는 서술어절에다가, 반드시 표현 양식으로 [-습니다]라는 정식 예법 접미사를 사용하여야 하거나, **공손 화법 접미사 [-나이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0나a’에 분포한 양식 접미사열은 [강조-존대-완료-겸양-진행-단정 종결] 접미사들의 배합으로 이룬 것이고, ‘10나b’의 표현 양식 접미사열은 [존대-완료-종결-연화사]의 배합으로 이룬 것이고, ‘10나c’의 표현 양식 접미사열은 [완료-중간 단정]의 배합으로 이룬 것이고, ‘10나d’의 표현 양식 접미사열은 [완료-단정 종결]의 배합으로 이루었음을 본다.

1.3.4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문체와 문 구조의 구성 방식

- 성경 번역문 구조를 중심으로 하여서

성경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적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떤 문체로 번역하여야 하느냐, 함이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다. 그것은, 앞 항목들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전어나 인구어의 문 구조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문체가, 현대 한국어의 문 구조에, 양식 접미사(열)의 분포 방식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다섯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이다.

원문, 곧,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적은 문 구조를 그 다섯 가지 표현 양식 중에서, 어떤 유형으로 번역하여 놓아야, 번역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드릴 수 있을까, 함을 놓고서는 깊이 있게 연구하여 볼 문제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의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헬라어로 적은 원전문 구조에서는, 수동문 구조, 또는, 피동문 구조로 이룬 것이 많은데, 그런 문 구조를 그대로 한국어의 번역문 구조에다가도 수동문 구조나, 피동문 구조로 번역하여 놓아야 하느냐 함이다. 그런 문 구조들을 한국어로 번역할 적에, 수동문 구조를 그대로 수동문 구조로 번역하여 놓으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아는 바는, 그 번역하여 놓은 그 문 구조가 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우냐, 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수동문 구조를 그대

로 수동문 구조로 번역하여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그런 문 구조를 읽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관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대하거나, 방관자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실을 보게 될까,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런 문제를 놓고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성경을 읽어 가느라면, 예수님께서서는 실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심을 본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시하여서, 죄인, 마귀, 어부, 사도, 농사짓는 사람,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 세리, 사두개인, 바리새인, 법관, 통치자, 유대인, 이방인, 등등. 그런 사람을 만나실 적마다 하신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다섯 가지 표현 양식 유형 중에서 어떤 한 가지 유형으로 번역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그 어느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곧, 예수님께서서 한국 땅에 오셔서,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 곧,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시면, 어떤 표현 양식으로 대화를 하시고, 어떤 문 구조체, 곧, 문체, 또는 어체로 말씀을 하시면서, 병인을 고쳐 주시고, 복음을 들려 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본다.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여 보면서, 성경 말씀 중에서, 몇 구절을 예로 들어서, 그런 번역문 구조에서, 번역인들이 생각하여 보아야 할 점들이 무엇이었는가, 함을 함께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곧, 우리가 읽는 성경 번역문 중에서, 개역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 성경전서 및 표준 새번역 개정판 성경전서 중에서 몇 구절을 예로 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문체로 번역한 성경을 읽고 있는가, 함을 살펴 본다.

1) 마태 3:13-15을 보면, 다음과 같은 번역문들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례 요한을 만나셔서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다. **궁서체로 적은 부분이 실제로 나누신 대화문 구조다.** 번역인들이 그런 대화 문 구조를 어떤 표현 양식-곧, 문체의 어떤 유형으로 번역하여 놓았는가, 함을 먼저 살펴 본다. 그리고서, 나의 번역 수정문을 붙인다. 나의 수정문을 보면, 나의 견해를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설명은 줄인다.

A) 『개역 성경전서』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B) 『개역 개정판 성경전서』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 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C) 『표준새번역 성경전서』

그 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D) 필자가 수정하여 본 것.

그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여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런데, 요한은 “내가 선생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까?”라고 하면서 사양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고 하셨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을 하였다.

2) 마 5:1-13

A) 『개역 성경』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B) 『개역 개정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C) 『표준 새번역 성경전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 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 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

D) [필자가 수정하여 본 구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에게로 나아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 나라가 그이들의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이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이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이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이들을 자비롭게 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이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이들을 자기 자녀라고 불러 주실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 나라는 그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 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 하십시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3) 마 6:9-15

A) 개역 성경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B) 개역 개정판 성경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 6:9-14

C) 표준 새번역 성경전서

“.....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D) 표준 새번역 개정판 성경전서

“.....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나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E) [필자의 수정본]
 “……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남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위에 인용한 번역문 구조들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개역, 개역 개정판 성경 전서들은 확실히 시대적으로 오래 된 번역문들이고, 표준새번역, 표준새번역 개정판 성경전서들은 십여 년 전에 번역하고, 두어 해 전에 개정한 번역문임을 뚜렷이 볼 수 있다. 거기에다가, 필자의 수정 구절을 올려 놓은 것은, 앞으로 오는 세대를 위하여서는, 번역 이론을 발전시킴과 함께, 번역문 구조를 좀 더 발전시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붙여 둔 것이다.

특히, 궁서체로 번역한 것은, 그 번역문 구조의 표현 양식을 현대어화하여 본 것임을 부언한다.

앞에서, 누누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구조는 현대인의 생활 언어에서 벗어나거나, 권위주의적인 표현 양식으로 번역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원고의 분량 때문에 “문채” figures에 관한 부분은 다음 호로 미룹니다.)

<Abstract>

Issues regarding Styles and Figures in the
Korean Bible Translation

Chang-Hai Park

This paper deals with the issues in Korean Bible translation by reviewing the differences in thought methods and structures between Greek and Korean in terms of the structural differences of these two languages. Individuality or aesthetic style as the way of talking or of writing in Korean can be accepted as the style or mode of expression within the sentence structure. The structural elements of style exist as the rule in structuring the sentence. These elements, the so-called expression modes, have two kinds of structuring methods, as follows: (1) the elements that can be analyzed as morphemes, and (2) the elements that can be analyzed as arrangements of suprasegmental morphemes.

As the elements of expression modes are exposed in the sentence structure itself, the expression modes have been treated as constituents in this paper. Taking the passages of Korean New Testaments that have been translated since 1900 as the sampl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xpression modes with the correlative relations of relativity theory I have established. As structures of translations have been transformed with historical progress, structures of styles in the Korean language have also changed through the process of historical development.

The issues are particularly derived from the following question: What are the expression modes of conversation and structure styles, viz. the written style of Jesus when meets the Korean people? Accordingly, in this paper I have evaluated the styles of translation in various Korean Bible versions, and have suggested my personal revisions of these translations. The issue of figures will be discussed in a later paper.